

*교회성립 24주년 기념호

평강의 향기

’77 9월호

*축복의 땅, 농촌을 세우는 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원교회



충현교회 연혁



1953년 9월 6일 : 18명이 첫예배(시내 인현동).
 1953년 10월 26일 : 중무로 5가36번지로 교회이전.
 1953년 11월 1일 : 유년주일학교 개교.
 1953년 11월 24일 : 기독교생면려회 조직.
 1953년 12월 12일 : 본관 건축 착공.
 1953년 12월 16일 : 초대 제직회 조직.
 1954년 1월 3일 : 주보 창간.
 1954년 1월 17일 : 여전도회 조직.
 1954년 5월 8일 : 당회 조직.
 1954년 11월 28일 : 청년찬양대 조직.
 1954년 12월 11일 : 첫 세례식.
 1955년 12월 17일 : 본관 준공예배.
 1956년 1월 8일 : 청년면려회 조직.
 1956년 8월 12일 : 동일교회를 충현교회로 개칭.
 1956년 9월 30일 : 첫 개척교회(시내 돈암동 성암교회).
 1957년 1월 2일 : 남전도회 조직.
 1958년 9월 30일 : 김창인 목사 위임식.
 1960년 2월 28일 : 어린이회 조직.
 1961년 3월 7일 : 별관 건축 착공.
 1961년 9월 28일 : 별관 준공.
 1962년 12월 16일 : 우리교회 표어로 「천국 일꾼을 키우자」 설정.
 성구로는 시편 18 : 1 선정.
 1963년 7월 7일 : 2 부예배 실시.

1963년 9월 19일 : 교회설립 10주년 기념예배 (충현10년사 발간).
 1963년 9월 25일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가입.
 1963년 11월 29일 : 제 1 회 겨울어린이성경학교.
 1963년 12월 1일 : 부목사제도 설정.
 1966년 5월 21일 : 제 1 회 경로회(청년부 주최).
 1966년 3월 1일 : 여성성가대 조직.
 1967년 8월 13일 : 방송전도(H. L. K. X.) 시작.
 1968년 9월 3일 : 교회설립 15주년 · 김창인 목사 성역31주년 기념예배.
 1968년 9월 15일 : 경기도 광주에 교회묘지 43, 530 평 매입.
 1968년 11월 24일 : 해외복음선교회 조직.
 1970년 1월 1일 : 성경통신학교 개교.
 1970년 12월 30일 : 새성전 신축대지로 논현동에 9,000평 매입.
 1971년 9월 9일 : 선교사 서만수 목사 내외 인도 네시아로 파송.
 1972년 4월 30일 : 「충현」지 창간.
 1973년 7월 29일 : 충현성경학원 설립.
 1973년 9월 6일 : 교회설립20주년 기념예배 (충현20년사 발간).
 1974년 1월 6일 : 3 부예배 실시.
 1975년 4월 13일 : 권사회 조직.
 1975년 4월 30일 : 매주일 특별집회 실시.
 1975년 10월 9일 : 제 1 회 충현교회 전교대회.
 1975년 12월 14일 : 전도위원회 조직.
 1976년 4월 30일 : 첫평신도선교사로 유병세 집사 일본에 파송.
 1976년 7월 6일 : 산업전도회 조직.
 1976년 8월 6일 : 선교사 이연호 목사 중동지역에 파송.
 1976년 8월 15일 : 첫 해외지교회로 뉴욕충현교회 설립.
 1976년 9월 23일 : 선교사 홍종만 목사 홍콩에 파송.
 1976년 11월 9일 : 평신도선교사로 신동수집사 아르헨티나에 파송.
 1976년 12월 20일 : 선교사 육호기목사 서독에 파송.
 1977년 2월 20일 : 평신도선교사로 박용삼집사 서독에 파송.
 1977년 3월 2일 : 충현출판위원회 조직.
 1977년 3월 6일 : 4 부예배 실시(제2 성가대 구성).
 1977년 4월 8일 : 매월 철야기도회 실시.
 1977년 8월 14일 : 김창인 목사 설교녹음 카세트 테이프 보급개시.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9월의 행사

- 9/4 교회 성경암송대회(요한복음) · 정기제직회 · 재정위원회 · 20년근속 · 봉직공로자 표창
- 9/6 교회설립 24주년 · 춘계대실방 시각
- 9/9 교회 천야기도회 · 구역요원훈련(1·4지구)
- 9/11 남전도회 월례회 · 권사회 월례회 · 산업전도회 월례회 · 편집위원회
- 9/12 성경학원 개강(1977학년도 제 2 학기)
- 9/18 전도위원회 · 여전도회 월례회
월간충현 9월특호 발행
- 9/19 교육위원회 월례회
- 9/24 선교음악회(고등부)
- 9/25 구역권찰회
- 9/27 정기당회 · 교육위원회 특강

9월호의 차례

- <말씀> 우리가 목표하는 교회 / 김창인 목사 ... 4
- 특집 《광야의 성막에서 오늘의 교회까지》
 - ① 광야의 성막 / 정기성 목사 ... 8
 - ② 솔로몬 성전 / 백성룡 목사 ... 10
 - ③ 스룹바벨 성전 / 김종택 목사 ... 12
 - ④ 헤롯 성전 / 이승근 전도사 ... 14
 - ⑤ 마음의 성전 / 이성근 목사 ... 16
 - ⑥ 충현교회가 세워지기까지 / 정은표 집사 ... 18
- 《화보》 1977년 충현교회 이야기 ... 19
- <편집실에서> ... 6
- <이렇게 답한다> 주일성수의 올바른 태도
김재창 목사 ... 27
- <적분론 ⑤> 장로의 분직과 자격
정상우 목사 ... 28
- <이단종교 비판 ⑧> 크리스찬 사이언스
윤형철 전도사 ... 29
- <평가 · 보고> 1977년 교회 하기행사
정은표 집사 ... 30
- <예배자료> 시편에서 읊는 주간의 만나 ... 32
- <청년신앙 간증> 전도자의 기쁨 · 보람
전운실 ... 33
- <찬송가해설 ⑨> 네 맘에 한 노래 있어 ... 34
- <1200자 칼럼> 절대사랑 ② / 이형수 집사 ... 34
- <도서정보> ... 35
- <책소개> 순교자 주기철 목사 생애
조선근 집사 ... 35
- <새성전건축 소식>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김기정 장로 ... 36
- <구역장 노우트 ⑨> 신앙지도의 지침 (12)
백성룡 목사 ... 37
- <구역확장 취지와 계획> ... 37
- <교회뉴스> ... 38
- <이달에 만난사람 ③> 김영한 박사
편집부 ... 41
- <표지설명> ... 42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43
- <실로암 못가에서> ... 44

우리의 신조

우리는 보수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민족의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안티옥교회가 된다.

월간 충현

김 창 인 목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음악을 타고 가는 복음—

이 복음의 외침들
가족과 이웃과 함께
들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아세아방송(1570kHz)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우리가 목표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3:7-13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담임장>

오늘은 우리 충현교회가 설립된 지 스물네돌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전에 교회설립 제10주년기념 설교에서 저는 우리가 목표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함 없습니다.

빌라델비아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빌라델비아교회를 한두마디로 쉽게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배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중에 생명 내어놓고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에 전파하는 교회라고 바르 빌라델비아교회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교회에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7절) 「거룩하시고」는 죄와 상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가르친 말씀이고, 「진실하시고」는 약속을 이행해 주시며 성도들을 보호·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가르친 말씀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만유의 대왕으로 나라의 통치권과 개인의 복과 화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교회는 성령님의 약속을 믿고 복종하여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교회는 왕의 왕되실 예수님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하늘나라를 이뤄놓는 교회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교회가 받은 축복

8절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셨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그 길이 막힌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겠습니까? 열린 문! 눈을 감으면 거도의 문이 열립니다. 눈을 뜨면 찬송의 문이 열립니다. 불신자를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공부를 하면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진도를 하면 재지를 향한 산고의 문이 열립니다. 열린 문!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집니다.

열린 문이란 다른 말로 「성공의 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교회를 위하여 성공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열린 문이란 「보호하는 문」이란 말입니다. 문을 열어 놓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데 악마가 어찌 손댈 수

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린 문을 세웠나니, 너희 경역하는 일이 성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린 문을 세웠나니, 너희를 손댈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린 문을 세웠나니 모자람이 없으리라! 얼마나 복을 받은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충현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교회인 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교회에 열린 문을 세워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4년 전, 18명이 모여 시작된 충현교회는 누가 봐도 미비했었습니다. 교역자라는 김창인은 여러모로 모자람에다 병약한 사람, 정말 한심했을 것입니다. 사실 손으로 다 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움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교인들을 모아 주십니다. 24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어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등 특한 사람이 9천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세워 주신게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저나 부목사님들이 목회를 쉰 갈래서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훌륭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도 내어놓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충현교회를 향하여 빌라델비아교회처럼 열린 문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빌라델비아교회가 받은 칭찬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8절)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교회는 인간적으로 힘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 당당한 권세는 힘없고, 그런 힘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돈·재산은 힘인데, 그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지식도 힘없고, 그런 힘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씀은 정성을 다 바쳤다는 뜻입니다. 적은 재산, 적은 지식, 적은 실력, 적은 기술…… 인간들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정성을 쏟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힘을 믿고 교만하며 인색하며 의색하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힘은 있으나 정성이 모자라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이 정성을 바치는 일에 도리어 방패군이 됩니다.

여러분은 밧세다 땅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의 보잘것 없는 보리떡 다섯개 물고기 두마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축복하시어 5천명을 먹이시고 일두 광주리가 남는 이적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교회는 어른·어린이 모두가

충현교회가 목표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과 권면 그리고 약속된 복
들을 우리 교회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쯤에 날마다 10월 이상을 넘으면서 “새성전 것
게 해 주세요! 복한 땅에도 선교사 보내게 해 주세요
요!” 기도하며 정성을 쏟고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안에 한국이 「빛의 동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적은 힘의 정성으로 말씀을 배우고, 적은 힘의 정성
으로 말씀을 지키고, 적은 힘의 정성으로 말씀을 전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로 창고에 쌓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교회가 받은 권면

예수님은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이
미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을 굳게 잡으라”(11절)고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선
한 일 쉬지 말고 계속해 다오! 진리를 지키는 일
계속해 다오! 지금까지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처럼 죽는 날까지 계속해 다오! 새로운 것 권면하
지 않고 일하는 것 더 잘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신자는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방학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방학을 잘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방학을 잘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방학을 못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줄을 아는
사람은 방학을 안합니다. 우리는 세상 제미에 취한
자들처럼 방학을 하면 안됩니다. 세상 근심·걱정에
눌려 신앙의 방학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
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쉬지 말고 합시다. 주
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교회에 약속된 축복

주님은 권면하신 다음, 빌라델비아교회에 네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너희를 위하여 열린 문을 계속 세워 주겠
다 하십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의 문,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의 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문,
전도하는 일에 해외선교하는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
다. 개인·가정·교회 등 모든 일에 문을 열어 주마
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90여년 동안
외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중에 우리교회도 6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서만수 목사님을 보냈는데 기쁘
고 반가운 소식이 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집
트(에집트)에 나가 있는 이연호 목사님 그간 많은 고
생을 하셨는데 이제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교
회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둘째로, 승리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내가 찾아가서 때려눕혀서 항복을 받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원수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
의 한 인물을 예로 들면, 형들에게 팔려 갇은 고생
끝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어땠습니까? “나 팔
아먹은 형들을 잡아오너라!” 하며 권세로 때려눕히
는 원수를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항복을 받았습니까. 신자
의 승리는 졸스럽지 않고 너그러운 사랑으로 자진
항복을 받는 승리를 주십니다.

셋째로, 내 하나님 전에 기쁨이 복되 하리라 하셨
습니다. 훌륭한 천국일꾼이 복되 하라 허락하십니
다. 집을 짓는 데에 요긴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가
장 요긴한 것은 기쁨입니다. 가정에서 기쁨같은 일
꾼, 교회에서 기쁨같은 일꾼, 사회에서 기쁨같은 일
꾼을 너희 중에서 얼마든지 키워 주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천국일꾼 키우는게 밤낮 소원인데 충현교회 권
은이들이 세계를 향하여 기쁨함으로 각곳에 주문받
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째로, 세가지 증명서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하
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겨 주신다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너는 천
국의 시민이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새 이름을 기록
하리라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너는 내 신부
로다」하는 이름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 세가
지 증명서를 받은 성도를 세상에 누가 손댈 수 있겠
습니까.

우리 충현교회가 이처럼 크게 부흥·발전한 것을
물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 것
을 감사합니다. 인간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
광을 돌립니다.

우리교회는 빌라델비아교회가 칭찬받은 그런 정성
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체 교인
9천여명이 정성을 묶어 바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교
회에 권면하시는 말씀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빌라델
비아 교회에게 약속된 네가지 축복을 충현교회와
은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 성전건축을 시작합니다/우리 교회의 몇가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성전건축이 머지않아 그 실행단계에 놓여졌습니다. 거의 10여년동안 준비해 오고 열망해 왔던 성전 건축에 우리는 모두가 큰 기대 안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953년 현재의 교회당을 지을 때의 그 열정과 열망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전부가 하나로 뭉쳐서 온전히 성전건축에 전념했었습니다. 전쟁 후의 폐허였고 그래서 사회와 각 가정의 안정이 안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였지만 전부가 하나로 뭉쳐진 힘은 모든 여건·환경을 넘어서 지금의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그와같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할 기회가 몇번이나 될는지 생각해 보면, 이 기회야말로 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일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계속 해의 선교와 공산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우리는 모르는 척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천국일꾼을 키우는 사업에 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문제가 놓여 있고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하는 국내전도의 막중한 사명도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고 9천여명에 이르는 양떼를 올바르게 이끌어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키워야 되는 내적인 문제와 점점 비대해 감에 절실히 느끼는 성도 상호간의 교제의 문제 등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많은 일을 병행해 나가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과업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던질 수 있다면 나머지의 모든 일도 잘 이루어지리라 믿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 교회설립 24주년을 맞으며 월간충현에서는 특집호를 발간합니다/교회설립 24주년을 맞으며 특집기념호를 발간하여 지금까지 성경상에 나타난 성전의 모든면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성막에서부터 솔로몬, 스룹바벨에 걸쳐 해롯, 초대교회, 오늘의 우리 충현교회에 이르기까지, 성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섭리, 성전의 정신, 그 자세들을 살펴보는 특집기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44년에 걸친 이 특집호는 성경상에 나타난 성전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과 아울러 현재 우리교회의 현황을 화보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우리교회 현황을 화보로 엮어 우리교회전물의 자료로 삼고 또한 직접 일선에서 뛰지 않는 교우들에게 우리교회의 전모를 알려,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의 봉사나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와 또한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성도, 또 타교회에서도 우리교회의 모든 면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생애의 최대 사업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마당에 이처럼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성전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전건축을 앞두고 이런 기획은 전교인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행여한사람이라도 성전건축에 기도, 물질로 적력으로 협력하는 일에 빠지는 사람이 없이 모두 참여하여야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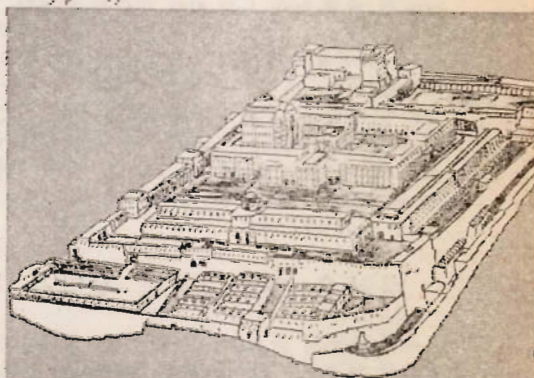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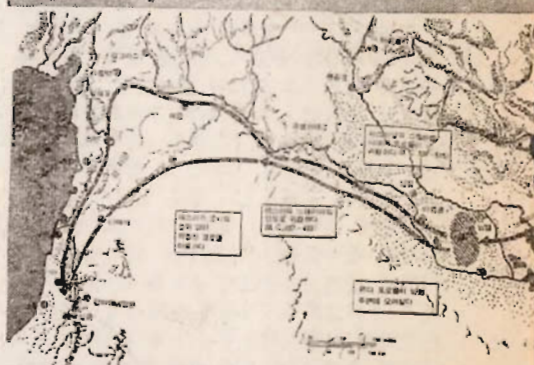
생각 밖으로 지면이 넘쳐 매달 정기적으로 다루던 주교교육에 관한 기획연재중 9월해당분인 학부모초청좌담회를 위시해서 몇가지의 특별기사가 다음호로 넘어가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몇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1977년 교회 여름행사에 대한 실시결과 보고가 두 페이지에 달기는 하였지만 지면도 한정되어 있고 기록자라도 충분히 못하여 부득이 개괄적으로만 정리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외국에 나가 계신 우리 충현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요사이 고국을 방문하여 교회에 오셔서 월간 충현이 해외에 계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려 주실 때마다 정말 신바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외 성도들을 위하여 한 페이지 고정적으로 할애해 주지는 못한다 해도 한국의 성도들에게 해외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말 한마디 없어 정말 섭섭했다」는 말씀을 해 오실때는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오늘의 교회까지

- 광야의 성막을 통해 성도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殿)을 건축하려는 자가 어떻게 정성을 다해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 성도들은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된다.
- 헤롯의 성전을 통해 성도는 성전이 결코 그 어떤 인간의 명예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먼저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이제 우리 총현교회가 새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힘쓰고 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의 성전을 올바르게 건축한 후에 땅위의 성전을 건축하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총현교회의 6천여 성도의 믿음이 그대로 표현된 웅장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자!



최초의 하나님 집인 성막

정 기 성 목사

<부목사·전도위원회 지도>



○...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이다. 우리 육체...○
○...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를 모신 모든 영혼을 통털어 말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교회...○
○...는 돌이 있을 수 없고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 없이 언제나 하...○
○...나이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천국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의 집단체로 영적교회에는 거짓 교인이 있을 수 없다. ...○

당위의 교회는 불안전 하나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당위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발전해 나아가며 완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불완전한 교회이다. 그래서 당위의 교회는 시대를 따라 고대교회와 현대교회가 있고, 지역을 따라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위의 교회는 또 장소와 건물이 필요하고, 조직과 운영방법과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당위의 교회에 봉사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당위의 교회를 어떻게 발전시키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재의 우리교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이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당위의 교회에 있어서 조직은 물론 건물과 운영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당위에 맨 처음 세우신 교회인 성막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당위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 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바라시는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맨처음 당위 교회인 성막을 세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이 당위에 처음으로 세워진 것은 성막이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워진 이 성막(또는 회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한 지 2년 후에 세워졌다(출 25:8,9; 40:17). 약 2년에 걸쳐 세워진 이 성막은 그 건축양식과 건축재료가 모두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대로 건축되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전해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감동되어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예물들을 자원하

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바치었다(출 35:21).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의 핀과 귀고리와가락지와 목걸리와 여러가지 금줄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낚고 그 낚은 천색·자색·홍색 실과 가는 베실을 가져왔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에봇과 흉배에 돌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출 35:20-29).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앞을 다투어 계속하여 즐거이 가져옴으로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 모든 재료가 남아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만 가져오도록 명령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되었다.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를 즐겨 실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심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첫째로 자원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생각한 그들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실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로 있는지 의심스럽다.

둘째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이를 즉시 실행동으로 옮겨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아낌없이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누구나 물질을 아낀다. 값진 것일수록 더욱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귀하고 아끼는 물질이라도 기뻐함으로 드리게 된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주머니 끈을 비굴히 댈 수는 없다. 우리는 종종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1/10을 드립시다”라는 말을 듣는다. 이는 당연하다. 눈을 떼어서 새성전 건축을 위해 바치지 못할망정 자기가 아끼는 보화나 물질을 바치기에 주저한다면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진정

□ 특집 : 광야의 성막에서 오늘의 교회까지 / ① 최초의 하나님의 집인 성막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다

하나님은 성막 새우기를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다시 명하셨다(민 2:1). 그리하여 애굽을 탈출한 지 2년 2월 1일에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수하니 그 수가 603,550명이었다(민 2:32).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과 레위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 있었고 그의 지파와 족속들은 동·서·남·북 등 사면으로 나뉘어 진을 쳤다. 즉 동쪽은 유다·잇사갈·스불론 지파가, 서쪽은 에브라임·므나세·베냐민 지파가, 남쪽은 르우벤·시므온·갓 지파가, 북쪽은 단·아셀·납달리 지파가 각각 진을 쳤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603,550명의 마음속 중심에는 오직 성막이 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의 정신과 육체 등 일체 사상과 행동 전부가 성막을 중심으로 집결되어 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우리는 광야같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오직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될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다. 즉 육신생활에는 가정이 중심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활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가까이 두고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하신 때는 깊은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다 하여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가까이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죽음으로 달리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만 있는 인간이면 성막이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육체를 가진 인생은 성막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이 성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성막 위의 구름과 불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 짓기를 다 마치고 번제단 위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니 성막 위에는 구름이 덮이고 성막 안에는 여호와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밤에는 성막 위에 구름 대신에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기쁘게 하였다(출 40:34).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구름과 불의 인도를 받아 앞으로 나아갔다. 성막 위에 덮였던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을 시작한다. 그리고 구름이 내려와 성막에 덮이면 행진은 몇날이고 쉬

었다. 또한 밤에는 불로 여호와와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다.

성막은 교회의 표상이었고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낮과 밤으로 구름과 불의 인도를 받아 그 앞길을 진행하였다. 낮의 구름기둥, 밤의 불기둥, 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것이다.

구름과 불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뜻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축된 성전에는 주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다. 단일 건물만 웅장하고 기구와 시설만 있을 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이것은 단순한 건물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전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과 성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교회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충성스럽고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사명이라고 본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 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앞쪽에 제 1진으로 유다·잇사갈·스불론과 제 2진으로 르우벤·시므온·갓이 섰고, 성막 뒤편으로는 제 3진으로 베냐민·므나세·에브라임과 제 4진으로 단·아셀·납달리가 행진하였다. 그들은 행진할 때나 머물러 있을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 모든 건물(성막)과 조직과 행진은 당위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올해로 설립 24주년을 맞는 총현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처한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인간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따르려는 중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총현교회의 온 성도의 마음은 이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감사함으로 받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을 모신 생활을 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자. (※)



<광야의 성막과 구름기둥>

성전시대의 문을 벌 솔로몬성전

백 성 통 목사

<부목사·구역전교회장>



시대적인 배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다윗 때까지 집짓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 그밖의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 때문이었다(왕상 5:3).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하였을 때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삼하 7:7)”고 반문하시면서 성전건축은 솔로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다(삼하 7:8-13; 대상 17:7-12).

이처럼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은 개인적인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고……(대상 17:4상-6상)”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장막에 거하시는 일에 조금도 불편이나 불만이 없으셨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됨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별 의미도 없이 외전상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전(殿)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치루고 있는 백성에게 성막을 걷고 성전을 지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으셨다. 이같은 하나님의 뜻을 안 다윗은 다만 그 뜻에 맞도록 순종할 것 뿐이었다. 그래서 “전(殿)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대상 29:1)”고 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면서 교통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고 성전은 이것을 위하여 세워진 건물이라면 이상에서 말한 대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순종이

○…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을 떠난 지 480년○ 되는 때였으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
○…4년 2월 초 2일이 되는 때였다(왕상 6:1, 대하 3:2). ○
○…이로써 성막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성전시대로 접어들○
○…게 되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정착하게 된 것도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유목민의 특징인 장막생활이 변화되어 집을 짓고 살게 됨○
○…로 생활구조와 형태가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
○…니라 종교생활도 그 형식과 규모에 있어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대상 17:9-12). ○

함하여 이루어진 성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라는 솔로몬 시대의 시대적 요청과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를 살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성전이 협소하여 교인을 수용하는 기능면에서 어렵게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졌을 때에는 적은 성전에서 큰 성전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마련이다. 만일 이같은 성전건축의 개연성을 무시하고 다른 일에만 힘쓰려 할 때는 성전건축을 통하여 약속된 여러가지 축복은 제외되고 오히려 무서운 재앙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 안다(학 1:).

성전건축의 준비

이것은 시종 다윗에 관한 말이 된다. 다윗은 군인이었기에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이로 인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전을 지으리라라는 말씀에서 크게 기뻐했으며 이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성전건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윗은 건축자재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자신 안에 실행한 성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 132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위하여 어떻게 힘썼나를 보여주는데 바로 실행한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을 잘 살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법궤를 찾아서 깨매인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신 신앙행위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한결을 더 나아가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그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온 그 때의 일이었다. 즉 다윗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면서 법궤는 조라한 장막 속에다 안치했다는 일이 몹시 괴송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다(삼하 7:). 몸으로 실행한 성전 삶은 다윗이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일은 극히 자연스런 일

□ 특집 : 광야의 성막에서도 늘의 교회까지 / ② 성전시대의 문을 연 솔로몬성전

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대상 29: 1)”라고 그가 준비해야 할 이유를 말했다. 일은 크고 사람의 힘은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와 협력이 필요함을 알았다. 솔로몬성전의 건축은 이처럼 다윗의 신앙적인 협력과 준비로 시작되었다. 다윗의 성전건축을 위한 준비로서의 협력은 물신양면에서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두로왕 히람과의 수교를 통하여 히람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도울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다윗이 성전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중에서 먼저 마련한 것이 성전대지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던 모리야산이 바로 성전대지가 된 곳이다. 다윗시대에 그 땅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소유로 타작마당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때마침 다윗이 인구조사 사건 때문에 전국적인 재앙을 만나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는 무렵, 하나님께서는 선전자 갓을 통해 그곳에 제단을 쌓도록 지정해 주셨다.

아라우나는 값없이 땅과 소와 나무로 된 농기구들을 조개어 바치려 했으나 다윗은 일일이 값을 다 치루고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의 터는 그리스도 뿐이라 (고전 3: 11)고 했을 때 모리야산의 아브라함의 제단은 그 예표로서 뜻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윗이 친히 제단을 쌓았던 사실과 상당한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성전의 대지로서 더할나위없는 이상적인 곳이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와 신앙과 정성으로 그밖의 모든 것들도 마련하여 하나님께 바칠 때 백성들도 이에 힘입어 기쁨으로 성전건축을 위하여 많은 것을 바침으로써 솔로몬으로 하여금 손쉽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29: 2-9). 다윗은 그의 임종이 가까와 올 때 성전의 지시를 따라 준비된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면서 그 식양대로 지을 것을 부탁했던 것이다 (대상 28: 9-21).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이 볼 수도 없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애타게 사모하면서 준비를 했던가 (대상 29: 3)? 한마디로 주의 이름과 그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

성전의 향방은 동쪽을 향하여 지성소와 그 앞에 성소와 광실과 광실 앞에 두 돛기둥이 서 있었다. 길이는 지성소가 20큐빗, 성소가 40큐빗, 광실이 10큐빗으로서 폭은 일정하게 20큐빗이었다. 광실은 3층으로 지었으며 성소와 지성소의 벽 옆으로 돌아가면서 다락방을 지어 성전의 많은 기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 솔로몬 성전은 성막보다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기능면에서 훨씬 세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다윗은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대상 22: 5)” 태성전이라고 했던 것이다. 또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낸 서한은 단순한 협력만을 의뢰하는 편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증거하는 선교적인 내용의 글이었던 것이다 (대하 2: 5, 6). 솔로몬의 성전봉헌기도문 가운데서 더욱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왕상 8: 41-43).

다음은 성전의 중보성이었다.

솔로몬의 봉헌기도문에 자주 발견되는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제신 곳 하늘에서...”라는 말씀이다. 솔로몬 성전이 일종의 중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성전이 주님의 몸의 그림자 (요 2: 21)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앙에 대한 암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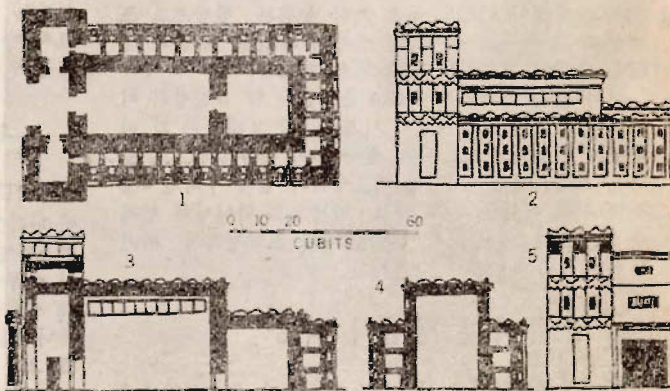
끝으로 피를 많이 흘리게 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신 일과 전을 건축할 때 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다는 등의 신령한 뜻은 솔로몬 성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화복과 화평과 평강의 성질을 가르쳐주는 신령한 교훈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솔로몬 성전은 교회의 본질이 어떠함을 알게 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으로서 그 기능이 어떠함을 제시하는 데 존립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백성이 범피하여 성전을 더럽혔을 때는 “이 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 버리리라 (왕상 9: 7)”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경고대로 범피한 하나님의 선민 유대 나라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면 배를 같이해서 솔로몬 성전 역시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으리 만 큼 비참한 종말을 가져오고야 말았던 것이다. (*)

솔로몬 성전의 준공과 종말

솔로몬은 그의 부왕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만 7년 6개월만에 준공을 보기에 이르렀다 (왕상 5: 38). 이 성전건축에 동원된 총 인원은 18만 3천 6백명이었는데 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방인 노예들이었다. 사용된 금·은·동·철과 각종 보석과 건축물 기타 목재 등 소요된 물자는 세수할 수 없으리만큼 많았다고 했다.

지성소와 성소 안은 정금으로 입혔으며 법궤를 정금으로 싸고 등대와 상과 그밖에 성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는 금 일색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돛으로 만든 것들은 두 기둥과 돛바다와 제단과 그밖에 제사 기구들이었다. 성전과 왕궁은 서로 인접한 곳에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의 평면·측면·정면>

역경 속에 건축된 스룹바벨성전

김 중 택 목사

<부록사·장년부 지도>



-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왕의 제3차 침공때 예루살렘성이...○
- ...함락되면서 파괴되었던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은 70년 후인 주전...○
- ...516년이었다. 이 제 2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특히 스룹바벨의 공...○
- ...로가 절대적이었다 하여 역사가들은 이를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 ...고 부른다. 그러나 광야의 성막, 솔로몬성전, 헤롯성전 등과 비교...○
- ...해 볼 때 스룹바벨성전은 너무도 어려운 환경여건 가운데서 이룩...○
- ...되었다는데 우리는 더욱 큰 감명을 받게 된다. 원수들의 갖은 방...○
- ...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성전을 완성한 것은 출사 6.25사...○
- ...변으로 폐허가 된 황무지 위에 교회를 재건하려던 지난날 우리의...○
- ...처지를 회상하게 하기도 한다. ...○

시대적인 배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왕 느브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성이 함락됨으로 유다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주전 586년이었다. 성전과 왕궁은 불타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되었으며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또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진노 중에서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38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즉 하나님은 바사(페르시아)왕 고레스(주전 539년 바벨론에 침입하여 함락시킴)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재건의 명령까지 내리었다.

그 명령의 내용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시 유다 예루살렘에 전(殿)을 건축하라 하셨다. 너희 가운데 무릇 그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라. 또 이곳에 계속 남아 있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다방히 은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고레스왕의 도움을 받아 약 5만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약 4개월의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은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무너진 성전터 위에 제단을 쌓고 아침·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며 또 성령의 규례를 따라 초막절까지 지켰다.

스룹바벨 성전의 착공

그러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

았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심하였다. 성전재건의 소망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었고, 또 고레스왕의 조서에서 볼 수가 있듯이 고레스왕의 명령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스룹바벨은 석수와 목수들을 돈을 주어 구하고 시돈과 두르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기름을 주어 테바에서 배향목을 벌목하여 바다에 띄워 읍마까지 수로를 통하여 운반하게 하는 한편 그 외에 여러가지로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지 2년 2개월이 되는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여러 제사장들이 모여 감격적인 기공식을 하여 성전재건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 그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레위지파의 아삽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규례를 따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찬송을 불렀는데 서로 화답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이와 같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자리를 함께 하였던 노인들은 옛 성전을 본 사람들인지라 더욱 감회가 깊어 대성통곡을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니 즐거이 부르는 찬송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한데 얹혀 분별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을 세워 성전축하는 역사를 감동하게 하고 그 외에도 여호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여러 사람들이 지원하여 건축하는 일을 맡은 여러 기술자들과 일꾼들을 감독했다.

원수들의 방해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이와 같은 선한 일에 방해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혼혈족들이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앗수르왕 에살해돈이 우리를 이리르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노라.”고 하며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같은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받

□ 특집 : 광야의 성막에서 오늘의 교회까지 / ③ 역경속에 건축된 스룹바벨성전

은 스룹바벨은 그러나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하나님께 성전은 거룩하니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을 모아 홀로 건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스룹바벨이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자 사마리아인들은 맹렬한 기세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데 심지어 외사들에게 뇌물까지 주어가며 방해를 했다(유대 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레스왕이 원정에 분주한 틈을 타서 그의 도지사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뇌물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전재건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 아닥사스다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함하는 거짓 내용의 고발하는 글을 올려 방해를 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악한 성음을 다시 건축하고 이 성의 재건공사가 끝나게 되면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마리아인들의 상소문을 받은 아닥사스다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건축공사를 즉시 중지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득이 성전건축공사를 중단에서 부득이 그만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역경을 헤치고 드디어 준공

일이 이렇게 곤경에 빠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지도자들마저도 좌절감에 빠져 성전 건축은 포기상태로 되고 말았다. 그리고 점점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성전건축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 데만 열중하여 완벽한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아직도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며 성전건축 일을 미루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같은 생각과 생활태도를 기뻐하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같은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게 하시었다. 그리하여 한재(旱災)·폭풍우·우박·곰팡이 등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20석이 되던 곡식더미에서 겨우 10석이 나고, 포도나무가 50그루 낱 곳에서 겨우 20그루 정도밖에 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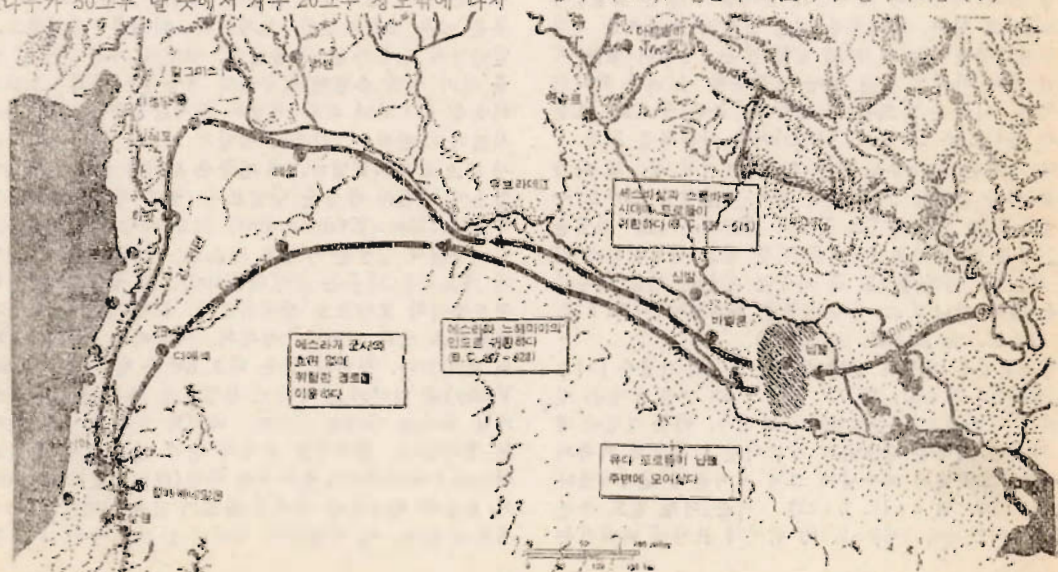
않을 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무화과나무·석류나무·감람나무 등에는 열매가 도무지 열리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고에는 종자로 쓸 곡식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주전 520년, 다리오왕 2년 2월 1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을 하였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단일한 생각에 빠져 성전건축에 동헌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경책하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와 같은 경책을 듣고 그해 6월 24일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 성전건축하는 일을 하였다. 여기에 여러 선지자들도 함께 힘을 모아 성전건축공사를 도왔는데 이때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갖은 방해로 성전재건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째 되는 해이었다.

이때도 또다시 방해꾼들이 일어나 방해를 하려 했으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모든 건축공사를 무사히 끝내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였다. 성전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약 3년 6개월이 걸렸으며 주전 516년으로 서 다리오왕 6년 아달월(12월) 3일이었다.

이렇게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비교한다면 그 재료나 솜씨가 훨씬 부족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솔로몬 성전보다 컸다.

하나님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성전을 다시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었는데 학개 2장 3절에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殿)의 이전(以前)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일것이 없지 아니하나, 그러나 나 여호와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바사람 고레스의 명령으로 스룹바벨이 귀환하다>

권력자의 소산인 헤롯성전

이 승 근 전도사

<고등부지도>



○... 헤롯은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
○...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주전 20년에 성전을 짓기 시...
○...작하여 1년 만정도 걸려서 본당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부속건물...
○...은 한세기 후에도 계속 짓고 있다가(요 2:20) 주후 70년 예루살...
○...렘 멸망과 함께 채 완성도 되기 전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 헤롯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식으로 방이 배열되어 있으나 건축양식은 희...
○...랍식과 로마식을 겸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성소 내부는 솔로몬...
○...성전의 배열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헤롯 성전에 대한 주요 역사...
○...적인 자료는 신약성경, 요세퍼스(Josephus), 미쉬나의 소책자...
○...인 미도스(Middoth)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성경의 기록

신약에 비록 헤롯의 성전에 대하여 100여곳의 언급이 있으나 건물의 크기나 모양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것이 없다. 대부분의 기록들은 유대인들이나 초대 기독교인들의 성전에 대한 태도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출입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다. 분명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성전을 그들의 종교생활의 중심지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만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르러서만 성전도 불필요하다는 관념이 있게되었다.

회람어에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 있다. 하나는 「나오스」로서 성전건물만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히에론」으로 부속건물까지 포함한 전성전을 의미한다. 이 두 단어는 우리나라말로는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하여 구별 없이 사용하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나오스」라고 한다. 마태복을 4장 5절과 누가복을 4장 7절에 「성전 꼭대기」라고 말한 것은 성전의 끝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성전 바깥 남동쪽의 코너를 의미한 것이다. 이곳은 거드름계곡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늘날의 높이보다 더 높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을 24장 1절의 성전은 누가복을 21장 5절의 「미석」을, 또 마가복을 11장 27절에 「성전에서 걸어 다닐때」 그리고 누가복을 20장 1절에 「그 곳에서 가르치시기로 하였을 때」라는 말이 바로 「히에론」이란 말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돈 바꾸는 자들이 건물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속 건물중 하나였다(마 21:12, 막 11:15, 눅 19:45, 요 2:14).

성소휘장은 건물의 안에 있었는데 그 건물은 「나오스」였다(마 27:51, 막 15:38). 이와 같은 구별은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헤롯 성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솔로몬의 행각이란 이름으로 기록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걸어다녔다(요 10:23, 행 3:11, 5:12). 「미문」이란 말도 두번 언급이 되었는데(행 3:2, 10) 위치와 모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성전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사장·군관·서기관 등이 있다고 몇 군데 나타나 있다(눅 22:4, 52, 행 4:1, 5:24, 26). 바울은 회람사람을 이방인들에게 금지된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행 21:28). 소동이 났을 때도 성전의 문은 닫혀 달지었다. 그러나 그들의 수나 위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요세퍼스(Josephus)의 기록

요세퍼스의 책은 안티퀴티(Antiquities)라는 책으로 주후 90년 경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며 성전에 대한 첫번째 기록이요, 일반적인 전례로 기록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제전작업은 헤롯 18년부터 시작되었다. 헤롯은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기를 원했다. 어떤 사람은 옛날 건물을 헐기만하고 다시 짓지 않거나 신상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헤롯은 매우 조심스럽게 일전대의 마차를 준비했고, 일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했고,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을 짓기 위해 유명한 석공들과 목공들을 불러 모았고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천명의 제사장들을 특별히 훈련시켰다고 한다. 그리하여 옛날의 기초를 다 파괴하고 새 것으로 대체하였다. 새 건물은 길이와 높이가 45m이었으며 건물의 중심을 양옆보다 높게 하였다. 그리고 주로 11.25m×3.6m×5.4m의 크고 하얀 돌을 사용했다. 두개의 입구는 수놓은 천으로 장식하였고 창문위에 가르지른 나무는 상인방(lintel)으로 금으로 장식한 포도송이의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모든 성전은 포장된 정원으로 둘러 쌓였다. 성전의 서쪽에는 바깥에 4개의 문이 있다. 첫번째 문은 티로포에온 밸리(Tyropoeon Valley)를 넘어가는 다리로 왕궁으로 가는 문이며, 두개는 교회로 나가는 문이며, 마지막 문은 시내로 향하는 문이었다. 남쪽에도 두개의 문이 있고 로얄 포르티코(Royal Portico)라고 불리우는 주랑(柱廊) 현관(portico)이 있는데 반대편에 두개의 통로가 있는 반면에 이쪽엔 세개가 있다. 이 주랑현관 아래에 있는 계곡은 너무 깊

□ 특집 : 광야의 성막에서 오늘의 교회까지 / ④ 권력자의 소산인 헤롯성전

어서 그것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거기에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각 기둥은 높이가 8m이며 둘레는 3사람이 팔을 펴서 그것을 감쌀 정도이다. 기둥의 총수는 162개며 두개의 바깥 통로는 길이가 9m이다. 바깥 통로의 총 높이는 152m이며 층간의 높이는 더 높다. 내부 건물은 남작한 돌들로 벽이 둘러싸여 있고 그위에 더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써여져 있다. 건물에는 3개의 문이 북쪽과 서쪽으로 나있고 동쪽에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부인과 함께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문문이 있다. 이 문안에는 여자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Women's Court)」이 있다. 이 너머에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나온다. 이 곳을 「이스라엘의 뜰(Court of Israel)」이라고 한다. 그곳을 돌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Priests Court)」이 나온다. 이 건물을 짓는 데는 8년이 걸렸다. 성전의 부속건물은 아그립바 2세 때 알비누스가 완공하였다. 이 건물의 완공은 원 계획에는 일만명이 동원되려 했으나 일이 마칠 때까지 일만팔천명이 동원되었다.

주랑 현관의 길이와 높이는 180m이었다. 바깥 거드문의 길은 계곡의 길이는 9m, 높이는 2.7m의 거대하고 하얀 돌에 의해 만들어진 큰벽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 아그립바가 자재를 모아다가 성소의 높이를 솔로몬 성전의 높이라고 생각되는 9m로 증축하려 하였으나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났다.

미도쉬(Middith)

미도쉬가 기록된 미슈나(mishna)라는 책의 이름은 「측량(measurements)」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책은 성전의 부속건물보다 성소자체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어떤 것의 크기나 굵고모는 요세퍼스의 기록과는 다르게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미도쉬의 작가는 해롯 성전을 가장 존경하였다. 성소의 파괴 후에 기록한 것은 그는 이상화 하는 경향이 있거나 가능한 장래 회복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 책은 제사장과 배위사람이 성소주위를 여러관점에서 어떻게 보고있는가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 시작한다. 성전에 있어서 넓은 지역은 「템플 몬트(Temple

Mount)」라고 불리워지고 거룩한 건물주위의 작은 부속건물들을 「템플 코트(Temple Court)」라고 한다. 템플 몬트에는 5개의 문이 있다. 두개의 홀다(Huldah) 문은 남쪽에, 키포누스(kiponus)문은 서쪽에, 잘 이용되지 않는 문은 타디(Tadi)로써 북쪽에, 수산(Shushan) 궁전 문은 동쪽에 있다(느 1:1, 애 1:2; 5-9, 단 8:2). 템플 코트라고하는 내부 건물은 7개의 문이 있는데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동쪽에 1개가 있는데 니카노르(Nicanor)문이라고 불리운다. 템플 몬트의 넓이는 (71×71)m이었다. 가장 넓은 공간은 남쪽이고 다음은 동쪽 다음은 북쪽 그리고 서쪽이 가장 작다. 그리고 성전은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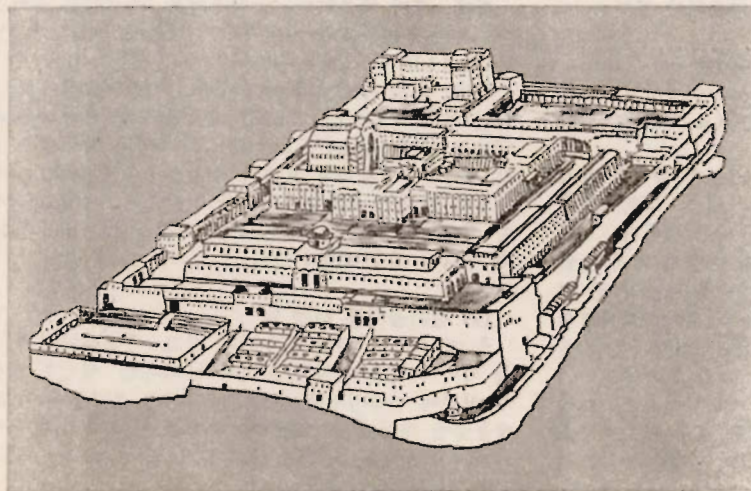
성전으로 가까이 가보면 격자(latticed)로된 간막이가 있는데 약 1m의 높이로 되어 있다. 이 안에 성벽이 있는데 넓이가 4.5m이며 거기에 올라 가려면 계단이 12개가 있다. 모든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와 문은 높이가 9m이고 넓이가 4.5m이며 현관 입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갖고 있다. 모든 문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으나 동쪽에 있는 니카르문만은 청동으로 되어 있다. 동쪽 벽은 낮아서 제사드리는 시간에 제사장이 올리브 산에서부터 독바로 희생제물을 바라볼수 있다 「여인들의 뜰(The Women's Court)」은 (12×12)m이며 여기서 「이스라엘의 뜰(The Court of Israel)」까지 올라가는 데 15개의 계단이 있다(여인의 뜰보다 이스라엘의 뜰이 더 높다).

「이스라엘의 뜰」은 길이가 60m이고 넓이 5m이다. 다음엔 「제사장의 뜰」인데 「이스라엘의 뜰」과 크기가 같다. 「제사장의 뜰」이 「이스라엘의 뜰」보다 1m가 높은 것은 전통이었다. 「여인의 뜰」을 포함한 모든 템플 코트(Temple Court)는 길이가 85m이고 넓이가 15m이다. 건물의 정면에는 빈 계단이 있는데 (6×6)m이다. 남쪽으로는 「램프(Ramp)」라는 것이 있는데 길이가 15m, 넓이가 7m이다. 여기에는 쇠붙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도착하는 장소는 계단의 북쪽에 있다. 현관에서 계단까지는 10m이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높이가 18m이며 넓이가 9m이다. 현관의 뒷쪽 저 성소의 입구에는 금으로 장식된 포도송이가 걸려 있다. 열려진 내부로 들어가는 데는 두개의 문이 있고 벽의 두께는 3m이다. 벽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으며

금은 없다. 그곳에는 조그만 방이 38개 있으며 3층으로 되어있고 주 통로 오른쪽에 입구가있고 왼쪽은 사용하지 않는다.

건물의 가장 넓고, 길고, 높은 것은 자기 45m가 된다. 2층방의 높이는 18m이며 꼭대기는 난간으로 되어 있고 올라가는 데는 위험하다.

메인·홀과 지성소사이에는 45cm의 공간이 있다. 지성소의 넓이는 (4.5×4.5)m이다. 현관 뒤에 있는 건물의 바깥 넓이는 32m이다. 그 건물은 앞면은 넓고 후면은 좁아서 「사자와 같다」라고 묘사할수 있다. (*)



<완성을 보기도 전에 무너져버린 권력의 상징, 해롯 성전>

마음성전을 올바르게 건축하자

이 성 근 목사

<부목사·총원출판위원>



○... 한 건물만을 성전으로 극한시킨 구약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은 온 세...
○...상을 하나님의 전(殿)이라고 말한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또한 온 우주간에도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전건물...
○...은 참 성전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눈...
○...로 볼 수 있는 지상의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성전...
○...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
○...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신행 곧 그...
○...곳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성전을 어...
○...떻게 올바르게 건축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관심이 집중하게 된다. ...○

1. 성전의 역사적 유래를 성경을 통하여 보면

(1) 우선 구약의 성전은

첫째, 들지단시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대에 걸쳐 존속되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어찌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고 하였다.

둘째, 성막시대 출애굽한 이후 다윗왕 때까지 여가서 하나님을 섬겼다(행 7:44-47).

셋째, 성전시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대제사 성전으로 이어진다.

이상의 성전은 모두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그림자에 불과한데, 이것들은 다 무너져버렸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 했다.

(2) 신약으로 넘어와서 건축된 성전은

첫째, 예수님은 실제 성전으로 구약의 성전보다 더 크시고(마 12:6) 참 성전이 되신다(요 2:19:22)고 말씀하셨다.

둘째, 마음성전이 있다. 이것은 성도의 각자의 마음에 이뤄지는 것이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 마음성전이 되는 것이다. “일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라”(엡 3:17)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참고 요 4:20-26.

셋째, 영원성전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히 9:11).

이상에서 성전의 발전된 과정은 들지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에서 신자로, 이렇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들나게 하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므로, 이 시대는 마음성전시대가 되었다.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두가지 일을 하셨다. ① 자신이 참 성전임을 보여주시고(요 2:19...) ② 영원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비하셨다. 그리하여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히 3:16) 그곳으로 승천하여 가시면서 성도들에게 마음성전을 지을 것을 지시하셨다. 이 마음성전 건축은 다음 몇가지 순서를 거쳐 진행된다.

2. 정지공사

무너진 구약 성전의 폐허 위에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정지공사가 필요하다.

(1) 왜 구약 성전이 무너졌는가?

첫째, 좁기 때문이다. 구약성전은 유대인만 들어갔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계적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했다(요 4:20-26; 행 7:48-50; 6:1-7).

둘째, 죄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요 2:16) 깨끗해야 할 집이 강도의 굴혈로 더럽혀졌고(마 21:13), 제사장은 예수님을 모실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추방운동을 하였고, 죽은 제물을 드리는 곳에 산 제물을 팔았으니, 이같은 성전을 예수님이 보시고 성전을 축성하셨으며, 주후 70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다.

(2) 정지공사를 하는 일

둘 하나도 틀 위에 덧붙이지 않고 무너져버린 폐허를 닦아야 하듯 구약의 파편이 너저분한 멸망의 상태인 심령에 마음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정지공사 즉 회개운동을 해야겠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눅 3:4-6).

□ 특집 : 광야의 성막에서 오늘의 교회까지 / ⑤ 마음성전을 올바르게 건축하자

3. 기초공사

건축은 기초공사를 튼튼히 잘 해야 지체롭다(마 7:24)고 했다. 구약 성전의 기초를 살펴보면서 오늘에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자.

(1) 모리아산이 기초가 되었다

①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대하 3:1).

② 스룹바벨 성전. 에스라서 5장 17절, 6장 3절을 보면 옛 성전의 그 터 위에 세웠다.

③ 대 해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위에 덧입혀 지었으니 모리아산 바로 그 산이다.

이렇게 성전의 모양은 다르나 성전터만은 바로 그 자리로 변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탁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탁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고전 3:11)란 말같이 모리아산은 참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성전 터를 잘 닦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믿는 것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2) 다윗이 금 600세겔이란 값을 주고 산 자리다(대상 21:24, 25)

다윗이 타락마당을 값을 주고 산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구속하기 위해 피흘려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심령이 마음의 성전터가 되는 것이다(고전 6:19, 20; 고전 7:23).

(3) 하늘에서 불이 내린 자리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대상 21:26).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화로 되는 것을 뜻한다(마 16:17).

4. 성전건축 재료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가지 재료를 가져야 한다. 마음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도 여러 재료가 필요하다. 유다서 20절에 “거룩한 믿을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건축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인격을 건축하라는 말로 예수님을 믿어 나가는 자의 마음성전 건축이다.

그러면 무슨 재료로 건축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0-17절에는 불에 타지 않는 금·은·보석과 불에 타는 나무와 풀질이란 재료가 있다. 우리는 타지 않는 금·은·보석으로 지어야겠다. 금·은·보석이 무엇이냐? 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거기에 보답하려는 감격적인 마음으로 무슨 일든종사하면 금·은·보석으로 마음성전을 짓는 것이다. 즉 금·은·보석은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이다. 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무슨 일을 하려는 생활태도가 금·은·보석과 같은 재료이다. ③ 봉사적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드려려는 것이 금·은·보석 같은



<주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심다>

재료가 되는 것이다.

5. 성전건축 방법

이제 성경(창 36:1; 대상 29:19; 스 1:5; 마 7:21-24; 행 20:32)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성령님을 마음성전 짓는 복수트 보내셨다. 그러므로 복수는 성령님과 말씀이시고 우리 성도는 보조사(인부)으로서 성령님과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마음성전을 짓는데 건축기술과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하는 것이 마음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져 십자가 혹은 시험이라고 말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순종으로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는 뜻이다(히 5:8, 9; 빌 2:5-12).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성전의 완성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즉 연습이라는 말로 순종을 표현했다. 마음성전 건축의 기술인 순종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연습·연마해 나가야 된다. 순종하여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여 연단되므로 마음성전이 이뤄진다. 연습은 매일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사건과 대화에서 순종을 잘 하면 벽돌 한 장을 쌓는 것이요, 만약 불순종으로 마음성전을 짓지 않으면 그 벽돌이 마귀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만나서 말 한마디를 가볍게 말고 조심성 있는 순종의 삶을 가지므로 마음성전을 완성하자. (*)

충현교회가 세워지기까지

○... 충현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1953년 9월 6일(주일) 오후 3시, 서울 중...○
○...구 인현동의 한명덕 권사 댁 2층에서 18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다. 물론 교회간...○
○...판도 없었고 성가대도, 마이크도, 종탑도 없었다. 오직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이 한데 어울려 방안의 열기를 더하여 주고 있었다. ...○
○...열릿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예배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깊다. ...○

전화속에 피어난 교회설립의 꿈

민족의 비극인 6.25동란이 일어나자 이북에서 월남한 김형인 전도사는 서울에서 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복음을 위한 전도의 발걸음을 쉬지 않고 1952년 11월에는 부산시 동대신동 1가에 동일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세워진 동일교회는 낙망중에 있던 피난민들에게 소망의 등대가 되었다.

그러나 1953년 수도 서울이 수복되자 다시금 서울로 돌아가 교회를 설립할 뜻을 세우고 부산 동일교회와 몇몇 중생스러운 중들을 먼저 상경시켜 교회를 설립할 대지를 물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9월 첫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립예배를 드리자는 한 성도의 주장대로 1953년 9월 6일 감격적인 첫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교회는 물색 중이던 대지를 지금의 충현교회 장소인 충무로 5가 36번지로 정하고 대지 310평과 건물 19평을 65만원에 계약하였으며 마침내 그해 10월 26일에는 성도의가정에서 드리던 예배장소를 옮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곳은 조선극장과 대원각이라는 유명한 요리집이 있다가 불타버린 장소였다. 바로 이러한 터위에 충현재단이 오늘날처럼 유독 그 웅장한 모습을 나타내게 될 줄이야 누가 생각했었겠는가.

본관 건축공사

새로 옮긴 예배처 관자집은 이어진 세 건물로도 급증하는 교인수를 수용할 수 없어, 몇차례 연쇄철막(60여평)으로 임시대책을 세웠다. 그렇지만 역수감이 쏟아지는 빗물은 천막 안으로 새어 들어와 새 예배당을 짓자는 논의가 이 때부터 더 강렬해졌다. 그런데, 겨울철이 다가오고 교인들의 숫적인 증가로 건축공사에 긴급성을 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1953년 12월 12일 새 예배당을 건축하려는 부흥 회담과 포부 속에 연건평 234평의 역사적인 본관건축에 일하게 되었다.

1954년 건축실행위원회가 조직되고 특별헌금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교우들이 생활안정이 되지 않아 마음처럼 헌금할 수 없는 교우들은 발을 등등물렸다. 성도들 중에는 새 예배당을 짓기 전에는 자기집 마련도 사양한다는 굳은 결의를 보이는가 하면, 틀나는 대로 건축장소에 달려와 도왔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까지도 밤과 후 달려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왔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건축이었기 때문에 곧 재정적인 곤경에 빠졌다. 300여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수시로 헌금을 하는 한편 부산 동일교회가 얼마간의 특별헌보를 보내와 건축공사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정된 건축공사를 끝낼 수가 없었다. 안타까운 교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헌금과 봉사로 최선을 다했다.

이같은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펴셨다. 당시 미 8군 산하 어느 부대 군복과에 근무하던 우리교회 성도 정현경 씨의 주선으로, 미군 후방기지 사령관 메이커 소장을 통해 15,000달러의 헌금을 자재로 약속받아 시멘트 8,300포대가 도착함으로써 큰 진전을 보여 온 교우들의 감격적인 헌당식 예배를 드렸다.

이때가 1955년 12월 17일이었으며 총공사비 3,600만원에 교세는 장년 약 570명, 유년 약 330명이었다.

별관 건축공사

본관의 완성을 본 1955년말 이후 1961년 새해를 맞이까지 교인수가 격증하여 장년만 750여명으로 본관이 차고 넘쳐서 주일학생 교육장소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형편에 처하자 교회는 1961년 2월, 건평 180평의 별관을 공사비 2,600만원을 들여 본관에 붙여 건축하기로 하고 즉시 건축설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된 별관 건축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 해 7월 1일에는 4층 상량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7월 27일 즈음엔 본관 서쪽에 복사관 3칸, 여전도사 사택 2칸, 사찰실 3칸 및 창고용으로 2칸 정도의 연26평 연쇄건물도 시공하였으며, 1961년 9월 28일에는 드디어 연건평 180평, 총공사비 3,000여만원의 4층 별관이 완공되었다. 당시는 교인수는 장년이 830명 중·고등학생이 145명, 유년부 360명이었다.

올해로 충현교회가 설립된 지 24년이 된다. 그간 성전의 확장 뿐만이 아니라 24년 전 18명이 6,000여명으로 늘어난 숫적인 부흥도, 선교·교육·봉사 면의 절적인 부흥도 놀랍게 이루어졌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주의 중들의 수고의 결과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교회는 또 다시 새로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고 오래 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가지를 준비해 오고 있다. 이미 앞서 성전을 건축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피와 땀과 눈물, 아니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겠다.

<충현 20년사·월간 충현 9월호(1976년) 참고>

특집 : 광야의 성막에서 오늘의 교회까지 / ⑥ 충현교회가 세워지기까지

1977년 충현교회 이야기

글 / 이 형 수 집사
(월간충현 간사)





↑ 중구충무로5가36. 충현교회가 설립된 때는 1953. 9. 6. 이었다.

↓ 충무로5가 큰길에서 본 충현교회.



충현교회를 처음 와 본 사람들이 충현교회를 본 인상은 「생동감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이야기 한다. 하긴 주일새벽 동트기 전, 조용조용히 모여들어 유년부실을 가득 채우는 새벽기도회 때부터 저녁 예배가 끝나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는 저녁 늦은 쫓집회시간까지의 충현교회를 보고 것처럼 평을 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연건평 294평의 3 층짜리 본당건물에 연이어 지은 연건평 180 평의 4 층짜리 교육관(2층 2·3 층은 대예배실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연 26평의 연채건물로 지어진 여전도사 사택 3 동, 본당을 중심으로 2 층짜리 4 동과 3 층짜리 1 동의 가정용 주택이 외부적으로 보는 충현교회의 건물의 전부이다.

이곳에서 매주일이면 3 천여명이 대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12부의 2 천 7 백여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며, 성가부의 찬양 연습, 각 기관의 각종회의와 집회 등이 이뤄지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란 공간은 다 적절히 이용하지만 집회실과 회의실 등의 부족은 여전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회실 출입문에는 3,4개의 사용부서 표시판이 붙어 있고 장소사용시간표가 붙어 있다. 이 장소사용시간표에 나타난 시간을 5분만 못지켜도 다음에 사용하기로 한 부서가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이와같은 복잡한 일이 매주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난다. 오전에 두번의 대예배와 어린이 새신자부·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청년부에서 사용하고 오후에는 두번의 대예배와 산업전도교육부·장년부·노년부·장년새신자부에서 사용하며 각 성가대의 성가연습, 교회의 각종행사와 각기관의 회의, 주일학교 교사회의 등으로 주일에는 각 집회실이 그야말로 빌 틈이 없다. 이런 상황을 교회기관지인 월간충현 어느 기자가 「주여, 차고 넘치나이다」라는 만평을 그려 표현했지만 이때는 벌써 몇년 전의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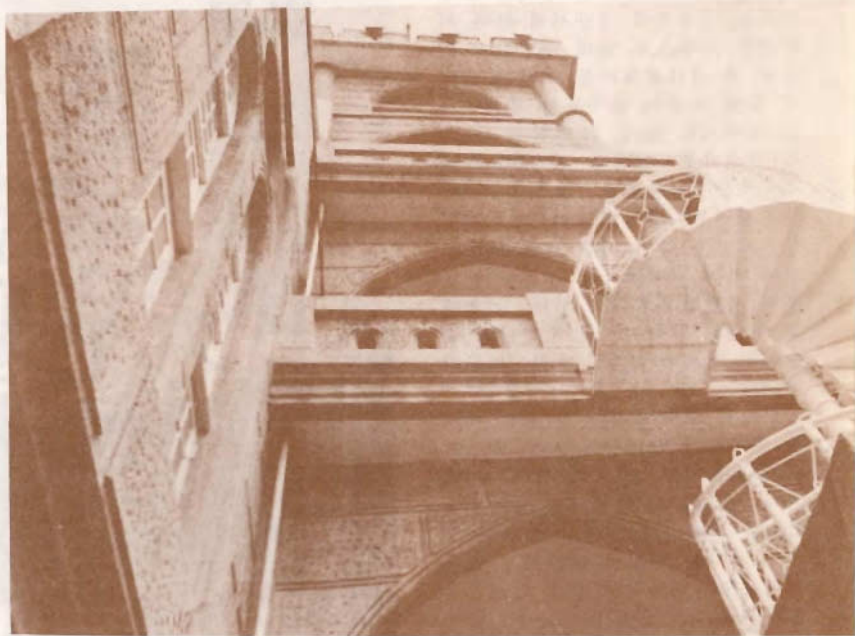
이즈음 2 부예배와 3 부 예배가 교차되는 주일 오전 11시50분의 혼잡함은 그 극(極)을 이루고 있다. 교회들과 성전 바깥 한길마저 초만원 속에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주일학교 각부에서는 더 이상 수용불가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주일학교의 숫적 발전은 장소에 비례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도는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충현교회는 1953년 9월 6일 (주일),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에 자리잡은 고(故) 한명덕 권사댁에 18명이 모여 시작되었다. 그후 두 주일 뒤인 10월 26일 현재의 장소인 중구 충무로 5가 36번지로 옮겼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일제때 조선 극장과 대원각이라는 유명한 요리집이 있다가 불타버린 음란과 방탕의 곳이었다. 그래서 충현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극장과 요리집을 헐고」 세워 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감사드리기도 한다. 이곳에 충현교회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3년 12월, 만 2년 6일만인 1955년 12월 17일에 준공을 보았다.

충현교회 예배당 종각의 특색은 층마다 아치형에 종탑의 계단이 나선형인 점에 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그때 공사의 어려움을 아직도 회상하며 매우 감회가 깊은 표정을 짓기도 한다. “도대체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라고 했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이것이 성경적이거든. 그래서 억지로 했지. 아마 이렇게 지은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일 거야...”

또한 교회의 명칭도 처음에는 동일(東一)교회라 불렀고 간판도 그렇게 붙였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사이비종파인 통일교회와 발음이 비슷해서 행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또한 교회명은 지역명을 따르는 것이 관례라는 점 등을 들어 1956년 8월부터 충현(忠峴) 교회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교회 예배당 위치가 야현동이다. 충무로로 된 것에서 착안, 충무로의 「충」자와 야현동의 「현」자를 각기 따서 붙였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충성된(忠) 고개(峴)」 위에 세워진 세대의 등대로 한자의 자의(字意)에 두고 풀이해 보기도 한다.

본당을 지은 1955년 이후 1961년 새해를 맞이까지 교회는 계속 부흥·발전하여 장년이 700명을 넘게 되자 장소 문제가 첫번째로 부딪혔다. 그래서 별관(교육관)을 건립키로 결정하고 그해 9월 28일 4층의 교육관을 건립했지만 2층과 3층은 대에배실로 연결해서 1층과 4층만이 교육관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장소의 문제는 심각하게 되었다. 그후, 교회 건축의 꿈을 안고 주위의 주택을 사들여 주일학교 두세 부가 들어섰지만 거의 사택과 소회의실 및 사무



실 등으로 쓸 수 있을 뿐 장소문제의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내는 것이 어언 10년을 넘었으니 장소의 문제는 심각한 정도 이상의 문제인 것이다.

다른 많은 교회가 그렇듯이 충현교회도 교인의 남녀 비율이 6:4 정도이다. 또한 충현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이른바 충현교회 출신이 40%정도이며, 한 해에 새로 등록하는 교인은 1972년 이후 평균 700명 정도, 이 새로 등록한 신자 중 20대가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1963년 교회설립10주년을 맞으며 우리교회는 「천국일꾼을 키우자」라는 표어를 정해놓고 꾸준히 정진해 오며 온힘을 기울여 교인전체를 교육대상자로 하여 교인 전체를 교육시키는 단계까지 성장시켜 왔다. 이와같은 노력으로 현재 주일학교 12부에 각 전담교역자를 모시고 있으며 몇몇 부서는 한두분의 부교역자를 모시기도 한다. 주일학교 12부, 즉 새신자부·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청년부·산업전도교육부·장년부·노년부 각기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회교육을 실시하며 각부의 사령탑으로서 7개의 기능별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주일학교 전체를 조정·관리·지도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에 쏟은 노력은 이제 충현교회 유년주일학교 출신이 제직원이 되고 장로로 피택되기에까지 이르러 각 단계마다 충현주일학교를 거친 사람들이 각계 각층에서 봉사하는 결실로 나타내고 있다.

평신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성경학원이 교회설립 20주년을 맞은 1973년에 개원하여 성인신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맡고 있다. 이 성경학원은 일반 성도들의 성경지식을 위한 보통반과 직업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직장전도자로 훈련을 받게 하는 연구반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상설 지도자양성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성경통신강좌와 도서실의 운영 등으로 일반 교인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기도 한다. 김희보·윤영탁·신성종·김영한 교수 등 전문적

- (상) 영아부는 학부모가 함께 공부한다.
- (중) 1년에 2-3차례하는 제1성가대의 특별성가 발표.
- (하) 70세이상의 노인을 위한 주일학교 노년부.





인 교수진의 확보로 충현성경학원은 원래의 꿈대로 점점 발전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농어촌전도로 특징되는 국내전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매년 농어촌교회 부흥을 위해 50~80명의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훈련을 시키고 또한 그 교회의 평신도지도자들을 불러들여 훈련을 시킨 후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대를 조직, 농어촌전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는 농어촌교회의 일시적인 도움이나 경제적 보조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인 지도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부흥·자립케 하자는 취지에서 되어진 것인데, 해마다 상당한 호응과 효과를 얻고 있으며, 농어촌전도의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특수전도로 교도소·유치장 전도, 캠퍼스전도 및 군(軍)전도에 관심을 쏟기도 한다. 특히 군전도는 사단내의 군종사병을 교육시켜 그들로 사단 전지역에 전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채택, 매년 사단군종사병훈련을 담당하기도 한다. 충현교회가 설립 이래 현재까지 개척 또는 중점지원한 교회는 공식적인 집계는 아니지만 30여 교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67년 8월부터는 방송을 통한 전도를 개시, 기독교방송과 극동방송·아세아방송망을 통해 보다 폭넓은 전도활동을 펴기도 한다. 특히 금년 8월부터는 새로 발족을 본 충현출판위원회를 통해 매주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선교를 카세트 테이프에 복사하여 국내외의 전도 용으로 보급하고 있다.



1968년에 조직된 해외복음선교회가 서만수 목사를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파송한 것이 그후 3명의 선교사가 3명의 평신도선교사를 파송하며 해외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작년에 최초의 한국선교관을 건립하며 선교의 전초기지를 다져가고 있으며, 중동의 모슬렘나라들을 향한 전초기지가 이집트(애굽)에, 중공 및 공산국을 향한 전초기지가 홍콩에 자리

- (상) 금년에 신설된 출판 위원회에서는 이미 카세트설교를 보급하고 있다.
- (중) 교회설립20주년을 맞으며 성경학원과 도서실을 개원
- (하) 여름마다 농어촌으로 달려나가 전도한다.



신교주일
너희는 가라 그리고 보내라
1977. 1. 30

1968년 해외선교회를 조직 후 7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했다.

를 잡고 있어 앞으로 중현교회가 해야 할 선교의 사명이 더욱 중차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현교회는 이 해외선교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10년 후에는 50여명의 선교사와 송이라는 큰 꿈도 갖고 있다.

교회설립 때부터 중현교회 성도들과 애환을 함께 해온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독특한 목회와 설교는 중현교회를 오늘의 중현교회로 키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다. 단 한 시간도 헛되지 보낼 수 없었던 그의 충성된 신앙과 생활은 오로지 주님과 교회만을 위한 일생이었다. 청년 때 얻은 병이 평생을 두고 괴롭히지만 주님과 교회를 위한 일념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의 연세가 이제 예순, 오는 11월 회갑을 맞는다. 특히 금년은 그의 성역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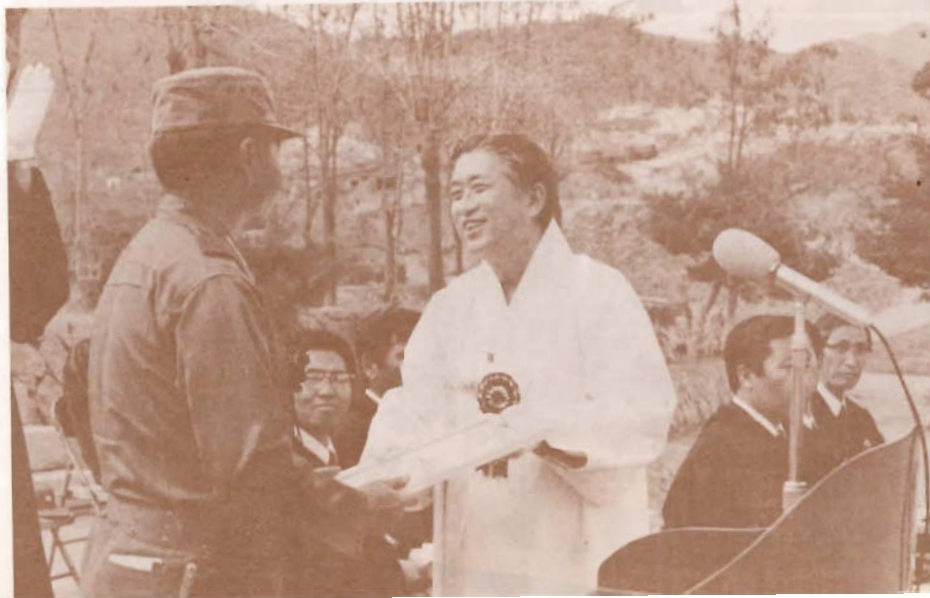
교회에서는 기념사업으로 그의 설교집 및 간행집 발간을 위해 그 준비에 착수했다. 교회설립 25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몇권의 귀한 책이 햇빛을 보게 될 것이다.

중현교회는 중현교회만이 갖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다. 영아와 학

부모가 함께 공부하는 영아부가 그렇고, 70이상 할아버지·할머니들에게 자신의 신앙준비와 자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노년부가 그렇다. 처음 나오는 장년신자들에게 특별한 교과과정에 의거 6개월간 양육하여 학습을 받게하는 장년새신자부가 있는가 하면, 직업청소년들로서 직장

서의 신앙생활과 직장전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산업전도교육부가 있다. 또한 산업전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산업전도회, 권사들로만 조직된 권사회가 있다. 이 권사회에서는 실질적인 봉사 외에도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을때 기도하는 임무와 물질로도 협력할 수 있는 면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런 부서나 기관은 교회

군(軍)선교에 앞장선 중현교회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밖에서도 큰 관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큰 교회일수록 소홀하기 쉬운 개인, 가정관리를 위한 세심한 배려는, 일년에 봄·가을 두차례에 걸쳐 전교인의 가정을 일일이 심방하고 유고자들을 빠짐없이 돌아보는 구역운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심방을 위해서만 5명의 목사, 5명의 여전도사가 말고 있지만 2천 6백여 세대를 돌보는 이들은 조금도 쉼이 없다. 결혼·장례, 기타 행사가 끊임없이 이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교인과 교인 가정 관리를 위해 중현교회 신정기관이라고 할 구역권찰회가 있다. 서울을 다섯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지역마다 전담목사와 전도사가 배치되어 있고 각지역은 9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각구역마다 담당장로·권사·구역장과 권찰 수명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 각구역에서는 매주 금요일 각구역 교인의 가정을 친히 방문하여 교인들의 생활을 돌보고 있다. 내년에는 150개 구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제 중현교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장(章)을 열게 된다. 오래 전부터 계획해 온 성전건축이 내년 봄에는 착공이라도 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내 강남구 논현동 6천여평의 대지에, 지난 8월 어렵게 성전부터 짓도록 건축허가가 나왔고, 이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설계에 부심하고 있으며, 그 일을 위해 15억원에 달하는 건축헌금을 목표하고 영아부의 꼬마로부터 노년부의 할아버지·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또한 전가족이 참여, 병어리지금통에서 저금통장까지 온 교인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그동안의 오랜 열망이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성전건축의 문제가 해결 되면 중현교회는 그야말로 그간에 쌓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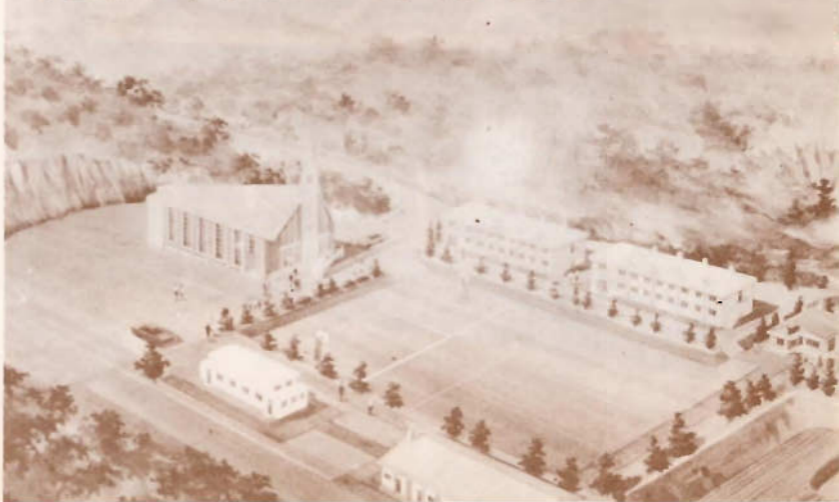
시내 강남구 논현동의 6 천평대지에 새성전건축을 한다.



↑ 1953년 건축시 모두가 하나가 되어 건축을 도왔다.

↓ 중현기도원이 금년말에 완공된다.

중현교회 수양관(가) 신축공사조감도





↑ 교회문은 24시간 열려 있다. 끊임없는 기도가 오늘을 낳았다.

↓ 세상과 교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이다.



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것이다.

또한 이에 앞서 역시 바라오던 기도원이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에 다목적용으로 공사를 진행,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총연건평 786평, 80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예배당과 400여명을 수용가능한 2동의 기숙사와 100여평의 식당을 갖추게 될 이 기도원은 기도원 그 목적 외에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훌륭한 신앙의 수련장으로 쓰일 것이다. 이 기도원이 완공되면 곧 금년 겨울수양회부터 그 장소문제가 다소 해결되어 장소문제를 간접적으로 덜 수 있게 된다.

60여평도 안되는 천막을 친 교회들, 본당 외에 개인 가정집 다섯채가 외부로 본 충현교회의 전부이지만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각종 방대한 조직, 당회·제직회·구역권찰회·성가부·교육위원회·전도위원회·재정위원회·건축위원회·동산관리위원회·인사위원회·장학위원회·성경학원·재단법인충현동산·월간충현편집위원회·충현출판위원회·해외복음선교회·남전도회·여전도회·권사회·주일학교 3명의 목사 3명의 어전도사, 2명의 공로전도사, 5명의 교육전도사를 갖고 있는 교회이며 29명의 장로와 91명의 권사, 집사 560명에 등록교인 9 천여명(어린이로부터 계수하여)을 포함하고 있는 교회이고, 400여명의 주교교사와 200여명의 성가대원과 100여명의 권찰 등의 일꾼들이 있는 교회이다.

그러나 이같은 충현교회도 매주 일 아침마다 꼬마의 손을 잡고 교회를 찾아오는 부모들의 그 열심이 없다면, 매달 기도원을 찾아 울부짖는 청년·학생들의 기도소리가 없다면, 생활의 바쁜 틈 속에서도 성경학원을 찾아 수강하는 젊은이들이 없다면, 매달 한번씩 전교 인이 모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소리가 없다면, 매일 새벽 어둠을 헤치고 지성으로 찾아오는 신실한 교인들의 새벽기도소리가 없다면, 24시간 문을 열어 놓은 유년부실에 끊임없이 와서 엎드려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없다면, 저녁의 모든 집회가 끝난 후 남아 엎드려 주님을 찾는 진실한 기도가 없다면 충현교회도 몰락해 가는 구미(歐美) 교회들의 그리고 세속화로 전락하는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모든 충현교회 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주일 성수의 올바른 태도

—특히 주일에 매식하는 것에 대하여—

김 재 창 목사

<부목사·교육위원>

지난 7월 11일 교육위원회에서는 늘어나는 주일 학교 학생들의 주일 매식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결의하여 작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일학교 학생 중 주일에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회로 오고 가는 길에 교회 주변의 구멍가게에서 먹을 것을 사먹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는 행위가 있어 교육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작부 교사들로 하여금 계몽·단속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주일학교 학생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 중에는 주일을 범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빵을 사먹거나 시원한 음료수를 사 마실 수 있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고 유감스러운 것은, 현대 한국 교회 기성 교인들의 주일 성수에 대한 해이한 사상입니다. 주일 성수는 예배시간에나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매식 행위를 예사같이 할 뿐만 아니라 예배시간을 전후하여 다방이나 음식점을 출입하는 일과 시장이나 백화점에 둘러싸 필요한 물건 사는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비신앙적인 어른들이 없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혹 말하기를 다른 교회 교인들은 주일에도 잘 사먹더라는 식의 책임 전가와 자기 변명을 하려는 이들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만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이며 주일성수의 원칙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단속에 의한 서정보다는 각자가 성경과 신앙 양심에 비추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올바른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주일(主日)은 글자 그대로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마 12:8). 주일은 결코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풀려난 해방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은 엄격히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이 따르는 실생활로 온 종일도록 기쁘게 하는 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존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일은 가장 즐거운 명절의식을 가지 고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만물 창조를 기념하는 대명절입니다(창 2:1-3).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기쁜 명절이기 때문에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신 5:15; 요 8:36). 이 영광스러운 대명절을 기억하여 바로 지키는 일이야말로 사람으로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은 주일을 거룩한 명절로 알고 지켰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미리 주일을 준비하되 토요일에 먼저 기도로 마음을 성결케하고 목욕과 이발을 해서 몸을 깨끗이 준비하였으며,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은 물론 심지어 아이들의 간식까지도 다 준비하고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했고, 또 거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육간에 큰 축복을 받아 세계 제일의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신 28:1-14).

세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깨끗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생활이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헌신의 생활이며, 자기 자신에게도 영육간에 복의 복이 넘치는 일입니다(창 2:3; 출 20:8-11; 사 58:13-14).

네째로, 자라나는 자손들을 실족지 않게 하고 순진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본이 되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가는 증표(히 4:9-11)이며, 소망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끝으로 교회 헌법적 규칙 4조 5항에는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을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힘써 기도·위문·기도·성경과 종교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세속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편리하게 주일을 지키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직분과 자격

정 상 우 목사

<부목사·교육위원장>

1. 장로직의 기원

성경에서 장로의 기원은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광야에서 백성들의 중사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백성의 대표로 선출한 70명의 장로에서 찾을 수 있다. (출 18: 21-25; 민 11: 16-25). 신약교회에서는 최초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장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으나 초대교회 집사제도(행 6: 1)보다 이전에 벌써 있었다고 본다. 아마 장로에 의하여 처리되었던 유대인의 회당의 정치제도가 그대로 신약교회에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문답조례 3장 참고).

이처럼 주님께서는 교회에 구약 율법시대에도 백성을 위해서 장로를 세웠던 것같이 신약 복음시대에도 말씀의 사역자 이외에 교회원 중에서 처리의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직분을 교회원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2. 장로의 직무

성경에는 장로(프레스비테르스)에 대한 다른 명칭이 있으니, ① 감독(에피스코포스) 「돌보아준다」의 뜻(행 20: 28; 딤후 3: 1 등), ② 관리자(퀴베르네이스) 「방향을 준다」의 뜻. 우리말 성경에는 「다스리는 것」으로 번역됨(고전 12: 28). ③ 처리자(프로이스타이노스) 「알장신다」의 뜻. 우리말 성경에는 「다스리는 자」로 번역됨(롬 12: 8; 살 5: 12). ④ 인도자(헤구메노) 「지도한다」의 뜻 등이다.

이상에 열거한 명칭으로 볼 때 장로직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주님의 양무리를 맡아 지키며 먹이며 인도하여 다스리는 직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참고로 정치 제 5장 4조인 장로의 직무를 살펴보자.

① 장로는 교인의 책임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② 장로는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게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의 편면하와 회개하지 아니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 한다.

③ 장로는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쳐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④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실패의 결과를 찾아 본다.

⑤ 장로는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호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3. 장로의 자격

장로로 세움받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에 의하여 택하심을 받아야 한다(고전 1: 1; 15: 10 롬 12: 6 갈 1: 1, 15 등). 그런데 이 택하여 세우심을 받은 과정이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선거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다(행 1: 24-26; 6: 3-6). 그러기에 교회가 장로를 선택할 때에 유의하여야 할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딤후 3: 1-7; 딤후 1: 5-9).

(1) 인격적 면에서

① 급히 분배지 않으며(딤후 1: 7), ② 구타하지 않으며(딤후 1: 7), ③ 다투지 않으며(딤후 3: 3), ④ 관용하며(딤후 3: 3), ⑤ 더러운 이를 탐내지 않으며(딤후 1: 7 딤후 3: 3), ⑥ 나그네를 대접하며(딤후 1: 8; 딤후 3: 2), ⑦ 선을 좋아하며(딤후 1: 8) ⑧ 근신하며(딤후 1: 8; 딤후 3: 2), ⑨ 외로우며(딤후 1: 8) ⑩ 거룩하며(딤후 1: 8) ⑪ 절제하며(딤후 1: 8), ⑫ 아담(단정)하며(딤후 3: 2). 이상은 개인의 인격적인 면에서 유의해야 할 자격요건인데, 이는 성품이 과격하지 않고 온유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가정생활 면에서

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딤후 3: 4), ② 한 아내의 남편인 자(딤후 1: 6; 딤후 3: 2), ③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자녀를 양육한 자(딤후 1: 6; 딤후 3: 4). 이상은 가정생활 면에서 유의할 자격요건인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전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회생활 면에서

①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딤후 1: 7), ② 말씀에 순종하는 자(딤후 1: 6), ③ 가르치기를 잘하며(딤후 3: 2), ④ 새로 믿고하지 않은 자(딤후 3: 6). 이상은 교회생활 면에서 유의할 자격요건인데, 이는 구원의 확신과 성경의 지식과 통솔력과 충실성이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정치 5장 3조 「장로의 자격」에는 “말 30세 이상인 남자중 믿고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지식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후 3: 1-7에 해당한 자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4) 사회생활 면에서

「의인에게서도 선한 충격을 얻은 자」(딤후 3: 7)타야 한다.

이상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장로의 자격요건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적당할 것이 없는 사람”(딤후 1: 6, 7; 딤후 3: 2)이어야 한다. 이러한 성경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장로의 자격을 바로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기에 장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로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니라”(눅 17: 10) 하는 고백과 더불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와 자기 훈련(딤후 4: 6-16)이 있어야 한다. (*)

일종의 범신론적 신관

윤 형 철 전도사

〈중동부지도·종신연구원 3년〉

크리스찬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는 에디(Mary Baker Eddy) 부인에 의하여 1879년에 미국에서 창설된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이다. 이들은 심리요법과 접신적(接神的) 치료요법을 통한 치료를 원리로 삼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과학과 건강」(Science and Health)이란 경경을 갖고 있으며, 전통적 기독교회의 신앙과 생활에 도전하고 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미국내에서 일간지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 주간지 「크리스찬 센티널」(Christian Sentinel), 월간지 「크리스찬 저널」(Christian Journal) 등을 통하여 문서포교의 기반을 닦아 왔으며, 그외에도 도서열람실 운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포교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약 1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약 60여개국에 포교되어 있다.

1. 「과학과 건강」

「과학과 건강」이란 책은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창시자 에디 부인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경경이다. 이 책은 1875년에 초판이 출판되었고 1891년에 대폭 수정되어 개정판이 발행되었는데, 그들은 이 책이 성경처럼 신적 영감을 받아 쓰여졌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신유의 은사 혹은 접신적 치료요법을 주제로 한 에디 부인의 학설을 체계화한 것으로 전반부(1장~14장)는 과학과 건강의 원리들이요, 후반부(15장~18장)는 성경의 열쇠로 편집되어 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에 의하면 「과학과 건강」은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에 있어서 모든 일에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 한다.

에디 부인은 「과학과 건강」은 어떠한 오류도 없으며, 성경은 「과학과 건강」에 의해 해석될 때에만 유용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최종적 유권 해석과 권위는 「과학과 건강」에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예배순서에서도 설교전 먼저 「과학과 건강」을 낭독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나와 거기에 맞는 성경구절을 봉독한다. 이러한 의식은 성경보다도 「과학과 건강」에 우선적 권위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신관과 기독교관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신관은 일종의 범신론적 신관(汎神論的神觀)이다. 「과학과 건강」이란 책에서 신은 모든 것 안에 존재하며, 동서에서 신은 모든 것이 된다 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신은 선하고, 선한 것이 마음

라고 말한다. 즉 신을 신적 원리·생명·진리·사랑·정신·영·마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에 대해서도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한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고 그에게는 결합이 없다고 하나,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인간 예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개념적 그리스도를 중요시한다. 에디 부인은 말하기를 “갈릴리의 선지자로서의 이러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나는 나의 영적인 개념이란 단지 신의 모양과 형상 안에서 참 인간임을 아는 것뿐이라”고 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죽음·부활·승천 등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단지 영적 개념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한다.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못하고, 단지 그것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뿐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선의 표시이며, 이것은 인간에게 사랑과 진정한 감격을 주었고, 이 사랑의 진정한 감각이 인간을 죄악과 죽음의 법으로부터 구원한다고 한다.

3. 기도문제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과학과 건강」에서 주기도문을 영적으로 해석, 풀이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모든 조화자가 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를 “승배할 자”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 기갈을 채우소서”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그리고 사랑은 사랑을 나타내며”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신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지 않으며, 죄와 질병,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며”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신은 무한하시며, 전능하시며 생명·진리·사랑,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등으로 해석했다.

이 밖에도,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과학과 건강」의 후반부인 성경의 열쇠라는 부분에서 창세기·요한계시록·시편 등을 영적으로 해석해 놓았으며,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 지명, 단어들도 영적으로 풀이해 놓았다. (*)

땀흘려 맺은 결실에 감사하자

- ... 재벌 서늘한 바람이 분다. 결실의 계절, 가을의 내음이 햇 과실에서 물씬 풍긴다. ...□
- ...모두가 그 무덥고 긴 한 여름동안을 농부들이 땀흘려 일한 결과 받은 선물이다. 농부...□
- ...가 기쁨과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이다. ...□
- ... 이같은 농부처럼 우리교회도 예년과 같이 또한 올 여름에도 땀흘려 전도하며 가르치...□
- ...고 배웠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면 지금도...□
- ...감사한 마음 그치지 않고 우리들이 흘린 땀 방울이 밀거름 되어 허락하신 결실들을 하나, ...□
- ...들 손꼽노라면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 복음의 사역자로 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 ...오직 감사, 감사를 드릴 뿐이다. ...□

올 여름행사의 개요

불과 십여년 전만 해도 여름행사 하면 「어린이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양회」가 전부였다. 좀더 확장하면 「하계전도」라고 해서 농어촌교회에 찾아가 「어린이 성경학교」를 실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남을 가르치기 배가 전에 먼저 배우고 깨달아 올바르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되 실력 있는 자가 되어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며,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든지 나의 직분과 위치를 올바르게 알고 정신을 차려 똑바로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넘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 속에 실시된 올 여름행사는 연 인원 3,000여명이 참가하였고 총 80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다. 실제 행사는 모두 21개로서 6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되었지만 그 사후처리 일정까지 감안하면 9월말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도위원회

전도위원회의 여름행사는 「농어촌전도」와 「군중사병훈련」이 있다. 올해는 특히 과거의 평가와 경험을 최대한 살려 기획·준비에서 사후 평가까지 비교적 어느 해보다 잘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도대원의 사전훈련에 미흡한 점이 많으며 이 기간중 얻은 새신자의 보호·육성에 있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군중사병훈련」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과 긴급성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함에 비하여 일반성도들의 이해가 부족한 탓인지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1. 농어촌전도대 파송

1977년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총 54명이 8대로 나뉘어 8개처에 파송되었다. 파송교회는 진지동교회·주광교회·신전교회·화정교회·학산교회·비인교회·낙천교회·방갈교회 등이다. 활동내용과 결과를 보면 새벽기도로 시작하여 오전·오후로 축조전도를 실시하고 저녁에는 부흥집회를 열었다. 그 외에 현지 교인의 전도훈련과 주일학교의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같은 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2,337가정을 방문하

여 757명의 결신자를 얻었으며 부흥집회 기간중 참석한 불신자의 수는 1,781명이나 된다.

몇가지 제언을 한다면 한달 전에 전도대가 편성되어 준비는 잘 할 수 있었으나 파송지 사전답사로 전지훈련이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전도대원 훈련 교과목이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도지는 대상지역이나 피전도자의 수준에 맞도록 별도로 제작하였으면 좋겠다.

2. 군중사병훈련

1977년 7월 6일부터 9일까지 제 0사단휴양소에서 열렸다. 오전 4시 30분 기상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새벽기도회에 이어 오전중 강의를 듣고 오후는 각종특별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저녁에는 부흥회를 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피교육자들의 수준이 높았으며 신앙성장에 대한 열의와 사기가 대단했다. 그러나 사회의 일반교회의 의견으로 훈련도가 너무도 소외당하고 있다는 이들의 호소는 안타까운 것이었다. 훈련도에 대한 이해가 미상적이며 이를 실감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군에 입대하는 교회 젊은이들을 특별전도훈련을 시켜 군전도사로 파송하고 제대할 때까지 모든 면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성경학원

성경학원(연주반·보통반)과 지도자양성부 외에 성경학원의 주요사업 가운데 「농어촌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이 있다. 이것은 우리교회가 과거 십수년간 농어촌교회와 여러가지 형태로 관계를 이루어오면서 얻은 체험에 의해 시작 된것이다.

1.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1977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우리교회에서 실시되었다. 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 등의 65개 교회에서 65명의 교역자들이 초청되었다. 주로 목회자들의 자질 향상과 부흥집회를 통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같은 농어촌교회 부흥을 위한 행사는 우리 교회만의 독창적인 것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교회문제 연구를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를 수차 강조해 왔고 도시의 다른 교회들과 연합사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2. 농어촌교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

1977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교회에서 실시되

었다.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과 같은 지역의 34개 교회에서 모두 62명이 초청되었다. 주로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교회의 제직 또는 교사로서 어떻게 교역자를 잘 도와 교회에 봉사할 것인가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일학교

주일학교의 올 여름행사가 표면상으로는 예년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몇가지 중요한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밝히려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먼저 극히 부분적이기는 하나 주교 각부의 평균수준을 안정시키고 상호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교육위원회가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올해는 예산편성문제에 깊게 관여함으로써 각부의 계절학교 운영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계절학교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일과,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구체화하는 일과,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다.

다음은 노년부와 영아부·유치부를 들 수 있다. 노년부와 영아부는 개설된 지 불과 2~3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잘 해보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하다. 특히 70세 이상의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모인 노년부는 스러져 가는 것더미 속에서 불꽃이 튀기는 듯한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

세번째로 젊은이들의 귀중한 신앙체험을 들 수 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단 둘이서 대화를 나눌 때 무겁기만하던 그들의 과거가 산산히 깨어져 나가는 아픔을 맛보았다. 그 후에 오는 기쁨, 나를 뜻한 홀가분한 기분, 이들의 새 결심이 상처를 입지 않고 그대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도록 돌아보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교과

과정의 미비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너무나 많다. 주제와 교과선정의 일관성이 희박해지기 쉽고 학생 생활지도와 특별활동 및 특강의 방향을 구체화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와 연관된 것이지만 요사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이런 허점을 뚫고 너무 무절제하게 남용되고 있으며 심하면 찬송가에 대응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항상 언급되고 있는 문제들로 고질적인 장소문제는 예외로 하고라도 부교재 확보 문제, 교사의 사전교육문제, 보조교사의 선정·활용 문제, 제정의 현실화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장로수양회 및 성가부수양회

1. 장로수양회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운수리 수양관에서 29명의 당회원을 상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자」는 주제로 열렸다. 특별히 정상우 목사의 성경강의는 정말 은혜로운 것이었다.

2. 성가부 수양회

먼저 제일성가대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유년부실과 대능에서 정상우 목사를 강사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주제로 열렸다. 60여명의 대원이 참가한 이번 수양회는 8번째가 되는 것인데 성경공부와 성곡감상 및 대원 친교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여성성가대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이성가대는 첫번째 수양회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상명여대 수양관에서 열렸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으로」라는 주제로 정상우 목사가 강사로 수고하였고, 대원 80여명이 참가하였다. 낮에는 성경공부와 밤시간에는 부흥회를 열었다. 그리고 음악을 위한 특강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리: 정은표 집사>

주일학교 1977년 여름행사 결과표

1977년 9월 1일

기 관 명	행 사 명	행사기간	행 사 장 소	참가인원		소요경비
				교 사	교 육 자	
1. 대학부	제 8회 하계수양회	7.19-7.23	강원도 삼척군 「예수원」	8	86	804,445
2. 청년부	제 7회 하계수양회	7.18-7.20	경기도 입석 「태화수양관」	7	118	574,010
3. 색신자부	제24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7.25-7.28	충현교회당	18	65	67,840
4. 초등부	제24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7.25-7.28	충현교회당	57	265	327,132
5. 중등부	제15회 하계수양회	7.26-7.29	총회신학대학	39	235	976,063
6. 유치부	제24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8.1-8.4	충현교회당	45	198	238,540
7. 유년부	제24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8.1-8.4	충현교회당	70	288	407,670
8. 초등부	제 5회 어린이수양회(5학년)	7.26-7.29	청산여상생활관	33	97	513,670
9. 고등부	제15회 하계수양회	8.2-8.5	광주기도원	23	189	880,365
10. 영아부	제 3회 어린이여름성경학교	8.10-8.11	충현교회당	27	163	124,790
11. 노년부	제 2회 하계수양회	8.22-8.23	충현교회당	19	108	190,000
합 계				346	1,812	5,102,525

시편에서 주는

주간에 만나

시편 10:1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면 즉석에서 도움의 손길을 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우리를 뒤쫓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불길 듯이 밀려오는 환난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와 같이 계시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편이 지나간 다음에야 흔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다.

시편 11:4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때에 성도가 가질 신앙생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세상이 어려워져 외로운 정치가 무너지고, 도회교육이 무너지고 의인의 계획이 무너지면 의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 악인의 세력이 세계를 주관하면 옳은 자는 숨어야 되는가? 그러나 성도의 터는 만세반석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터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성도의 터, 성도가 의지하고 서는 그 반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공격할 자도 없고 함락시킬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터는, 성도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는 우리의 생활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성공한 사례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시편 12:1

위대한 기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기도는 위대합니다. 짧지만 매우 적절합니다. 단도직입적입니다. 다윗은 중성된 부하가 적은 것을 탄식하고 그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였습니다. 피조물을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고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고난을 받아 피곤한 신자가 달리 모

든 데서의 도움이 끊겼을 때에 우리의 도움은 주님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이다”

시편 14:1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란 무학무식(無學無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자가 되어 창조주를 없다고 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부패하여지고 악에 빠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참 도덕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경건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부패하여집니다. 부패는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이 썩은 것을 말합니다. 썩은 나무는 재목으로도 쓸 수 없고 아로새길 수도 없으며 악취가 나고 병균이 생겨서 남에게 손해를 주고 자신은 천대를 받게 되듯이 부패한 자의 생각·말·행동 전부가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는 소행이 가증하여집니다. 그래서 못나고도 잘난 것처럼 덤비고, 더럽고도 깨끗한 것처럼 덤비고, 힘이 없으면서도 힘이 있는 것처럼 덤비니, 하나님 앞에 미움과 심판의 대상이 되고 사람에게겐 동정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할 자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나 나라에 충성이나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상벌을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까(히 11:6)

시편 14:5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한 자들이 외롭게 살기 위하여 가난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배경이 없어진 자들의 제국을 함부로 쥐어짜리고 마구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찌할 줄을 모를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를 백성이 홍해 중간에서 병거의 바퀴가 빠질 때에 도망갈 수 없어 떨어져 함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악인들이 “산아 나를 가리워라”하며 두려워해야 함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히 11:6).

전도자의 기쁨·보람

전 은 실

(제일성가대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나이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전 대원들은 온통 땀과 먼지·피로로 두 눈은 울퉁 패였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얼굴에는 광채가 났으며 귀가하는 발걸음에도 상상치 못할 힘이 있어 보였다.

우리가 전도대상 지역으로 갔던 신전리 교회는 전복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읍신부락에 자리잡고 있는 곳에 일주일간 힘과 뜻을 같이하여 전도했던 대원들은 지도교역자 김태현 강도사님을 위시로, 총감독이셨던 송기홍 집사님, 모든 일에 어머니격이셨던 김영숙 집사님과 그리고 서은숙, 최영자, 최선희, 전은실 대원으로 모두 7 식구가 한 가족이 되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보답할 줄 몰랐던 자신을 책망해 가며 신전리에 도착했다. 그곳 신전리 마을은 한창 농번기로 바쁜 때였고, 담배를 주산물로 재배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으로 모든 생활을 하는 그 마을은 일손이 딸려서 교회에 잘 참석하지는 못하나 농한기가 되면 교회 자체내 부흥회도 가지고 적극 실망도 하여야겠다는 교역자님의 말씀이 있었다. 또 덧붙여 등기 전도대도 원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다.

신전리교회는 70년의 연를 가진 기성 자립된 교회로서 장로님이 배분, 집사님 30여명, 교인수는 어린이까지 500여명 정도였다. 전도가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전도열은 미미한 상태로 맨 처음엔 부채나 들고 따라다니시겠다던 집사님들도 끝날 무렵엔 우리보다 앞장서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는 한없이 기뻐했다.

축하전도 때에는 기도와 성경말씀으로 깨우치길 원했고, 일손이 바쁜 데에서는 같이 일도 거들어 드리며 전도하고, 지식층에는 「사영리」를 어린이와 연세높은 분들에게는 「마을의 거울」로 전도하여 큰 효과를 보았다. “주여, 이 한 생명,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간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을 때, 너무도 소중히 간직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저녁부흥집회는 어린이 중심 부흥회라 서운한(?)감이 없지 않았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의 한 생명도 어른과 똑같다는 생각에 이를 때에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일째 되는 수요일, 아침식사를 일찍 하고 신전리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되었다는 내동교회 부락을 전도하기 위해 전무장을 하고 떠났다. 커다란 산을 넘어야 했다. 그러나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가면서 감사와 기쁨에 넘쳐 찬송을 계속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두 시간 남짓 걸어서 내동교회에 도착했다. 아직 지도교역자가 안 계시는 신전리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주일 저녁집회를 인도하는 교인수도 얼마 안되는 교회였다. 우리는 아름다운 복장에 목자 없이 풀을 뜯고 있는 양들에게 목자를 보내 주시길 울며 간구했다.

하루 낮·저녁을 다리가 부르트고 구슬땀으로 옷을 적셔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는 감사뿐이었다. “부름받아 나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피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찬송을 부르며 기쁨 충만한 가운데 전도할 때 성령님 임해 주셔서 심각한 표정으로 열심히 듣고 믿기로 확신하는 모습을 볼 때 한없이 감사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게 한 대원이 웅덩이에 빠져 다리를 다쳐 피를 흘렸지만 우리는 계속 감사하였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전대원이 더욱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이제 앞으로의 대상지역 선정은 교세가 가장 약했던 내동교회 같은 곳으로 택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주님의 말씀 전파가 귀하고 기쁘기도 하고, 한편 힘들었지만 뿌린 씨앗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기도의 물을 주면서 열매는 주님이 거둬주실 것을 확신한다. (*※)

□ 교사 수필필레이 ③ □

예수 물랐다면

홍 인 숙
<영아부 교사>

저는 여름날! 올망졸망 비좁게 모여앉아 등그란 두 눈을 뜬 나의 꼬마친구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엄마 아파 할머니 품에서 자라다가 세상 처음 만난 선생님이라고 주일날 아침 나를 만나면 뭘지 모르고 구벽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는 말 대신 등그란 눈빛으로 의아하게 쳐다보는 그 눈망울을 바라보며.....

전도사님이 “친구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지?”하고 물으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아나님」하고 어설픈 대답을 하는 그 고운 입술들을 바라보며.....

집에서 해가지고 온 숙제지를 바라보면, 어디 그림이라고는 백지 위에 사람도 나무도 보이지 않게 붉은 크레온으로 직직 그려놓은 그림을 자기가 해왔다고 자랑스럽게 서로 무릎 위에 내어놓고 뿌듯해 하는 예쁜 마음들.....

현금뎌 친구들이 돌아가며 현금을 하면 혹시 자기 앞에 현금 바구니가 돌아가지 않으면 섭섭해서 그냥 물어버리는 애뜻 마음.....

나, 예수 물랐다면—— 이 맑은 눈동자와 고운 입술들과 사랑스런 마음 등을 어디에서 느껴본단 말인가.

저는 듯한 열기 속에서 나의 꼬마친구가 두 손 모아 예배드리면서 천진난만하고 아름다운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시 표백해 본다.

<다음지명 : 노경도 선생>

1200 자 찬송

절대 사랑 ②

이 형 수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며, 성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확실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그의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의 서문과 본문 사이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인용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 쓸모도 없다.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사랑하고 주목하고 인식한다.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늘면 늘수록 사랑도 커진다……」 사랑은 바로 앞에서 시작한다.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식, 이해,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대상에 대한 열심·인내·헌신 등 사랑의 속성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아는 일에 힘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등, 그 대상에 대한 면밀한 인내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은 시작할 수가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영생은 곧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주님을 아는 데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 주님을 알 수 없으면 우리는 도대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호세아 선지가 탄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영생을 얻고 또한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알의 일은 계속적인 현재로 객상머리에서의 알에서 넘어나 인격적, 우호적인 교제관계로서의 알이 계속될 때 우리는 진실로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 주님을 알아간다는 일이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There Comes to My Heart)

(새 496)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록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은 물질의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의 열매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업은 마음에 없이 억지로 해서는 안된다. 오직 「내 맘에 한 노래에 있어」 찬송하는 심정으로 해야 할 것이다.

1886년 어떤 날 오후 뉴저지주 오션그로브(Ocean Grove)에서 열린 유명한 캠프집회에서 복음사가자이며 작곡가인 필립 빌혼(Peter Philip Bilhorn, 1865—1936)을 초청하여 노래를 불러 달라고 했다. 빌혼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당시 널리 불리우고 있던 찬송 「놀라운 이야기를 노래하리」(I will sing the wondrous story)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는 그 찬송의 배경을 설명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했는데 그로 인해 이 캠프집회는 한층 더 은혜스러웠던 것이다.

축도가 끝난 후 그와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던 아이다 스토타드 디마레스트(Mrs. Ida Stoddard Demarest) 여사가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빌혼씨, 빌혼씨의 독창곡이 빌혼씨의 음성에 알맞는 것처럼 저의 음성에 알맞는 찬송을 하나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라 말했다. 빌혼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라고 묻자 디마레스트 여사는 “오, 아무것이나 아름다운 것이면 돼요.”(Oh, Any sweet piece)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서 빌혼은 힌트를 얻었다. 「Piece」라는 말에서 몇 자 바꾸어 「Peace(평화)」라는 말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주제삼아 노우트에 적어 내려갔다.

그날 저녁 빌혼은 골든(Mr. S.T. Gordon)의 집에서 그의 곡을 작곡하며 디마레스트 여사로부터 요청받은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찬송가가 완전한 모습을 보인 것은 다음해 겨울로 빌혼이 미국 중서부의 아이오와주에서 계속적으로 열렸던 복음전도 집회에서 무대 선생과 부흥사 횃불을 들고 위하여 이들과 더불어 시카고에서 아이오와로 기차로 가던 중 기차가 엘리노이주 위튼역 부근에서 갑자기 멎었을 때이다. 승객들이 내려서 보니 철로길과 도랑에 걸기 걸기 켜진 한 할머니의 시체를 보았다.

이것을 본 부흥사 횃불은 빌혼을 향하여 “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버려진 전부라는 것을 알만 하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주님의 몸은 부활하였으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의 보혈은 남겨졌읍니다.” 이 말에 빌혼은 “예, 소령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는 아름다운 평화를 주신 것이지요. 그의 보혈이 나의 죄를 속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구요”라고 대답했다.

이 처참한 모습을 본 빌혼은 도로 기차에 올라탔다. 그 뼈적거리는 소란 속에서 그의 영감은 되살아났고 기독교계에 영원히 남게 될 이 찬송이 마지막 단장을 하며 새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제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달 구입한 책과 이미 소장된 책들을 도서대장순에 따라 소개합니다(책명/저자(편자)/출판사).

□ 6, 7월에 구입한 책

- 진화론과 현대기독교/모리스/생명의 말씀사
- 후세의 세계/강홍수/천광사
- 이렇게 답한다/빌리 그레함/설우사
- 상황윤리/조셉 플레치/규문자
- 인간의 마음/메닝거 카알/백조사
- 설교예화집/이봉구/백암사
-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로울/감리회총리원
- 신(神)과 인간/황문성/천주교중앙협의회
- 교육심리측정과 평가/김영채/제등문화사
- 고대기독교사상/한철하/고대기독교사상
- 5 분설교집/안성진/기독교야동문화사
- 주일학교가이던스/안성진/기독교야동문화사
- 기독교음악사/이유선/총신대출판부
- 인생의 회복/홀 프랭클린/보이스사
- 인류의 종말/키르반 살렘/보이스사
- 아바겟돈전쟁/윌부르드 존/보이스사
- 한국기독교전례사/김광수/한국교회사연구소
- 구약주석(각권)메튜 헨리/기독교문사
- 무디선생의 생애/박종구/신앙에 출판사
- 예수 천당/김충남·박종구/백합출판사
- 주기철 목사 전기/김충남/백합출판사
- 기독교에배의 원리와 실제/압바/대한기독교서회
- 성막과 십계명/원용국/성광문화사
- 구약성경대지/오인명/백합출판사
- 신약성경대지/오인명/백합출판사
- 성막/디한 M.R/생명의 말씀사
- 무엇이 다른가/리대나워 프리츠/생명의 말씀사
- 초대교회 연구/바클레이/기독교문사
-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존 헨더/생명의 말씀사
- 구약의 신약적 성취/브루스 F/생명의 말씀사
- 율법이나 은혜냐/디한 M.R/생명의 말씀사
- 승리자 바울/밀러 도날드/대한기독교서회
- 교파의 유래/심재원/대한기독교서회
- 기독교교리요약/벌코프 루이스/성광문화사
- 신약이란 무엇인가/위치만 니/한국복음서원
- 성서개론/박창환/장로회총회 출판부
- 예수의 비유/전경연/대한기독교서회
- 방언비판/헤케마 안토니/신앙에 출판사
- 강단과 거성들/디머레이 도널드/생명의 말씀사
- 기도의 아홉단계/맥도날드 호프/대한기독교서회
- 성령의 세례와 방언/스크로기 그레이엄/생명의 말씀사
-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그라브 놀먼/생명의 말씀사
- 용기와 복종/콜린스 스티븐/생명의 말씀사
-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주권/패커 제임스/생명의 말씀사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
.....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
.....식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
.....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
.....때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
.....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격어.....
.....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
.....워 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총현」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김 충 남 지음

순교자 주기철 목사 생애

4·6판/284면/800원

백 할 출 판 사 발행

한국교회가 일제(日帝)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한 큰 시련기를 맞았을 때 갖은 고문을 이겨내고 죽음으로써 굳은 믿음의 의지를 보여준 주기철(朱基徹) 목사! 이 위대한 이야기는 누구의 가슴에나 꺼지지 않는 큰 감동을 준다. 한국의 성도로서 순교자 주기철 목사에 관하여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고 주목사의 생애는 그전에도 몇몇 인사들에 의해서 편편이 소개되었으나 이 책「순교자 주기철 목사 생애」(일명, 진달래 필 때 가버린 사람)는 저자가 8년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여 사진화보 8면과 함께 공개하였다. 이 속에는 주목사가 병사(病死)하신 것이 아니고 타살, 즉 주사로 독살(毒殺)되었다는 비화, 새로운 사실 등도 알려준다.

이 책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란

제목으로 영화화되어

근간 첫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은 소개하는 이가 말했듯이 읽는 이마다 한국교회의 보배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충성된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인(詩人)이며 목사인 저자의 아름다운 문장이 한번 책을 들면 다 읽지 않고는 못배기게 하기도 한다.

여기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요사이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가 영화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합동영화제작회사가 제작, 근간 시대 명보극장에서 첫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는 데서 우리의 흥미를 끈다. 이 영화에는 연예인 신영균 집사, 고은아 집사, 구봉서 색동 연예인교회 교인들이 총출연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 조선근 집사(월간총현 편집위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교회 설립 제24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날들의 일을 돌이켜볼 때 감격스러운 바가 큼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크게 부흥·발전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남보다 더 큰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충현교회는 주님의 은혜 중에 지금의 성전과 교육관 등을 건축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천국일군을 키우는 교회로서, 충성을 다해 봉사하는 교회로서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친히 보고 느끼듯이 계속 모여드는 성도들로 한 번에 예배드릴 수도 없을 분더러 각처회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막대한 실정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하신 섭리로 교회설립 15주년이 되는 지난 1963년에는 새로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고 1970년 12월에는 한강 이남의 지금의 강남구 논현동에 성전신축부지로 9,000평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시(市) 당국의 한지계획에 따라 6,067평 4홉으로 확정되었으나 시당국의 행정적인 조치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오다가 1977년 8월에야 비로소 허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새성전 건축이 허락되기까지는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정·기도원·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해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믿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새성전 건축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이때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이전보다 배나 더한 기도와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쏟아 부어야 하겠습니까.

현재의 예배장소와 교육관문제 등의 다급한 현실을 생각할 때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착공에 임할 마음이 불일 듯합니다마는 자손 만대에 물려줄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려는 방대한 사업을 그리 쉽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훌륭한 교회건물을 건축하는 일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은 건축설계를 위해 기도하며 많은 의논을 하고 연구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게 위촉하여 교회건물 조감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성도 여러분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구상하고 있는 새성전의 건물 배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4부로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한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본당, 12부 주일학교·성경학교·도서실 등 모든 교육시설이 완전히 수용될 수 있는 교육관, 전세계에서 요구하는 선교사를 양성하며 신학교육은 물론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는 선교관, 이 모든 부서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종합사무실 등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새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충현의 성도라면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똑같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내 각처회가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새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새성전 건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 아름답고 웅장한 새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좋은 실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 하루속히 새성전을 착공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 새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주신 것으로 새성전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77년 9월 18일

건축위원장 김 기 정 장로

취지와 그 실행계획

해마다 구역수가 늘어나는 때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믿는 식구들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구역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효과 있는 구역운명을 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의도에서 늘이기도 한다.

우리교단 헌법에 보면 구역조직은 10세대를 단위로 조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경험에 의하면 세대수가 너무 적어도 구역활동에 힘이 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30-40세대로 너무 커도 구역활동에 있어 완만해지기 쉽고 여러가지 힘겨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어떤 고정된 수에 비례하여 구역의 세대수를 늘이거나 줄일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구역이 7-8세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0세대가 훨씬 넘어야 할 때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지역적 분포상황을 살피서 서로 잘 연결되며 최대의 기능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에 따르는 구역의 분할선 변경이나 교인들의 심한 유동상황에서 구역조정이 수시로 되지만 구역 증설문제는 이러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 즉 구역증설을 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① 믿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서 자연히 구역을 증설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구역을 증설해온 실례이다. ② 효과적인 구역운명을 시도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구역을 증설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1978년도에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구역증설의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앞서 몇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① 우리교회 실정으로 보아 몇세대 단위로 구역을 조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② 구역이 증설되면 구역조직활동(집회, 협력을 위한 말적·인적 등원등)이 전보다 더 건전한 신앙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가? ③ 구역증설에 수반되는 요원들은 확보되어 있는가?

이처럼 구역의 세대수는 이미 정한 바대로 조정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구역을 증설하는데 보다 건전한 신앙형태로 발전되며, 필요한 요원들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안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훈련을 앞으로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즉, 그 첫 단계는 전사와 50세 이상의 여성도들로서 무릎의 세계교인을 교육한다. 둘째 단계는 현 구역장과 25세 이상의 남성도들로서 무릎의 세계교인을 교육한다. 마지막 셋째 단계는 25세 이상의 여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내용은 ① 구역운영원리 ② 구역집회 인도법 ③ 구역행정 ④ 구역심방 ⑤ 성도의 교제방법등이다.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구역교사」의 자격증을 주어 구역요원을 양성하며 점차 그 질을 높일 계획이다.

* 새해에는 현재의 94개 구역을 150개 구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 해외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지도의 지침 (12)

백 성 통 목사
<부목사·구역전교회회장>

사회참여라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신앙의 속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사회참여로 사회를 복음화하자는 뜻은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사회에서 즉 법제 활동하다 보면 경건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제 18:4 고후 6:17).

그러나 그릇된 비복음적인 사회참여만 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사회참여란 그렇게 사회악에 동참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고전 5:9-10) 사회참여 그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불안 속에서(진장과 위기의식이 때로는 신앙의 각성제가 된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가 사는 사회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빌 2:15-16).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신자들이 뜻있게 사회에 참여하여 옳고 그릇된 점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영광스럽게 그 사회를 복음화시켜 가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인 태도라면 사회를 대한다면 “경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의 지배 아래서 이용을 당하거나 애매한 회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아니냐면 불유익한 아첨의 이중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운동에는 제동이 걸리게 마련이고 사회복음화 또는 민족복음화란 그 목표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무슨 덕을 세우는 일같이 여기거나 할 일을 못하고도 당하기만 하는 여러가지 어둠의 힘이 마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영광된 능욕으로 알고 있다면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으며 그것이 비신앙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구역의 선지자들이나 신앙의 세대 요원이나 사도들이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목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불의와 부정과 부도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얼마나 어떻게 행사해 왔던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참여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을 증언하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부정하고 단순히 자연과학이나 사회 과학이라는 차원에서만 말이 되기 때문에 사회의 복음화라기보다는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릇된 사상을 가진(교회선교를 단순히 교세확장으로 비관하는 등 광범한 선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처럼 말한다.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는가? 사회참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면히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만회할 길이 없는 신앙의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새로이 장로 7명 더 뽑기로

—가을노회 승인을 전제로 오는 10월 30일 주일에—

당회는 지난 1976년 11월 15일 제10회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바대로 오는 10월 30일 주일 1·2·3·4부 예배 후에 장로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단 오는 10월 11일에 열릴 수도노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중현교회에 시무장로는 모두 29명이다.

7명을 선출할 것을 목표로 실시될 이번 장로투표를 위하여 여러 성도들은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치리장로는 교인의 백함을 받고 교인을 대표하며 지도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정을 관리하게 된다. 장로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중현교회 교인으로서 입교인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딤후 3:1-7). 선거는 당회가 개최할 날자와 장소를 1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하여 작성한 시간에 출석한 대로 개최하여 투표자 수의 2/3이상이 가(可)로 선택한다. 투표권은 우리교회에 입교한 무흠 입교인은 누구나 있으며 투표방법은 비밀투표이다.

한편 지난 4월 17일 실시된 장로투표에서 선출된 이원철 장로(중경), 지금산·윤명식·김희철·조산근·김은호·오병희 집사에 대한 취임식 및 장로 장립을 오는 10월 18일(화)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오는 10월 11일에 열릴 수도노회에서 먼저 시회·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당회장 해외여행 떠나

—선교계획 수립과
목회 청사진을 위해—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지난 9월 13일(화) 저녁 6시 경각 김포 국제공항을 떠나 3개월간의 예정으로 해외여행길에 올랐다. 당초 6월 초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그간 국내의 여러가지 행사에 관계되어 늦어지게 되었다.

<김창인 목사>

이번 해외여행 목적은 외국에 나가 전문을 넓혀 목회의 청사진을 그리고, 해외선교사업에 발전시키기 위해 보수총회의 여러 선교기관 교육기관들과 회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으며, 천국일꾼을 해외에 내어보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행 예정지는 스웨덴·노르웨이·서독·스위스·이집트(에집)·홍콩·미국·캐나다 등이다.

천국일꾼 양성에 크게 기여

—중현교회 장학위원회 외국 성도들도 협력—

오래 전부터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온 우리교회는 1970년 장학위원회(위원장 김창인 목사)를 구성하고 천국일꾼을 키우는데 실제로 필요한 물질적인 뒷바라지를 꾸준히 하여 오고 있다. 이같은 사업이 실제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3월 이현실 권사(현재 미국이주)가 2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내어놓으셨기부터이다. 그 후에 이와 뜻을 같이하는 여러 성도들이 참여하여 비록 기금의 액수는 아직 미미하나 하나 둘 그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

이현실 권사와 이창일·공용빈·황숙영 집사 외에도

멀리 캐나다에서 김희학씨가 \$200을 보내왔으며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중현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모아 \$1,000을 보내 온 사실이다. 그간에 모여진 장학금으로 올해 처음으로 의대생 1명을 졸업시켜 현재 평신도전도자로 지방병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8명의 신학생들이 현재 키움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처럼 사람을 키우는 일에 뜻을 함께 하여 협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추석성묘 합동예배 계획

—오는 9월 27일 중현동산에서—

오는 9월 27일 중추절을 맞아 교회는 추석성묘 합동예배를 중현동산(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서무부에서는 지난 9월 4일부터 대절 버스의 좌석예약 신청(1인당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시간표를 보면,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정오쯤에 도착하면 오후 12시 30분부터 합동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한다. 예배 후에 개별적으로 묘소도 돌아보고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 3시 30분에 하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질서정연하게 교회의 인도대로 따라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새해 구역 대폭확장 예정

—현 94개 구역을 150개 구역으로—

구역권장회는 1978년부터 현 94개 구역을 대폭 확장하여 150개 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같은 구역확장계획에 따르는 준비작업이 이미 착수되어 진행중에 있다. 이같이 새해에 구역을 대폭 확장하게 된 이유는 보다 효과적인 구역운동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이를 위하여 권사, 25세 이상의 남성도, 50세 이상의 여성도들을 3단계에 걸쳐 특별히 준비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20년근속 · 봉직 성도 공로표창

— 윤종성 장로, 이창순 · 노영숙 권사

교회설립 24주년 맞아—



<윤종성 장로>

<노영숙 권사>

<이창순 권사>

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은 지난 9월 4일, 교회는 20년 근속·봉직 성도에 대한 공로를 표창하였다. 이번에 표창을 받게 된 윤종성 장로·이창순 권사·노영숙 권사는 20년 이상을 우리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여 교회에 크게 유익을 끼치며 다른 성도의 모범이 되어 왔다.

이 20년 근속·봉직 공로표창 제도는 교회설립 23주년을 맞은 지난 1976년부터 실시하여 오고 있는데 해마다 9월에 우리교회의 제직, 교사 성가대원, 또는 권찰로 임명을 받고 연 20년동안 과오 없이 봉직에 충성하여 우리교회 성장·발전에 이바지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표창을 받은 성도는 올해 3명을 포함하여 모두 21명이 된다.

교회 성경암송대회 성료

—요한복음 13장—16장, 전장 암송자 모두 13명—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성경말씀을 가까이 하여 사랑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장하는 뜻에서 우리교회가 연 2회 이상 실시해 오고 있는 교회 성경암송대회가 지난 4월 24일에 이어 9월 4일 올해 들어 두번째로 열렸다.

이날은 특히 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어서 더욱 뜻있는 암송대회가 되었는데 110명의 참가 신청자 가운데 실제 출전자는 87명이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모두 4장을 범위로 하여 실시된 이날의 암송대회에는 2세 된 영아(영아부 김은국)로부터 79세의 할머니(노년부 김산석)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층마다 고르게 참여하여 더욱 이채로웠다.

특히 이날 13명의 전장 암송자 가운데 산업전도교육부의 한철남은 665절 단절에 660절을 얻어 가장 뛰어난 성적을 나타내었다. 전장암송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1명, 20대가 1명, 30대가 4명, 40대가 2명, 50대가 1명, 60대가 3명이었으며 최고령자는 72세의 홍찬옥 집사였다. 전장 암송자는 다음과 같다(성적순). 한철남·홍순애·김명실·김종순·홍찬옥·김태현·신성운·김순실·한영석·김연이·이성하·양경희·손동운.

영아부 2부예배 실시

—급증하는 학생 수용할 수 없어—

주일학교 영아부(부장 박창수 장로)는 지난 9월 4일부터 주일예배를 2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간 예배장소가 급증하는 학생수(현재 160여명)를 감당할 수 없어 여러가지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가운데 부득이 이같은 조처를 취하게 되었다.

I부 예배는 전세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II부 예배는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특별한 교사의 충원이 없이 현 담당교사들이 계속하여 어린이를 지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교회 춘계대심방 시작

—주일학교 각부도—

매년 봄가을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되는 1977년 교회 춘계대심방이 지난 9월 6일부터 시작되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 잠 16:20」는 성구를 심방표어로 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이번 심방을 위해 각 구역에서 적극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각부에서도 하기 행사를 끝내고 가을을 맞아 학생 일석심방을 시작하였다.

유치부 학부모교실 마련

주일학교 유치부는 9월 첫주일부터 「학부모교실」을 마련하고 학부모를 위한 성경강의(경연회 전도사)와 어린이 행동에 관한 상담시간(박성수 교육학박사)을 갖는다고 한다.

성경강의는 매주일 유치부 I부 예배시간 끝난 후부터 10시까지(매월 마지막 주일은 월), 상담은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며 장소는 제1성가대 연습실(별관 지하실)이다. 상담을 원하는 내용은 2주전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사내용 바로잡음

* 월간 총련 8월호 23페이지 우측 하단의 「첫 지휘자 반주자 교육」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8월 16일→8월 23일

모두 21명 참가→모두 24명 참가
강사 정성우 목사→(삭제함)

* 제시 지난호 특집 「이렇게 담한다」의 기사내용중 8페이지 위에서 17줄 줄의 「교육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충분한 교육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로 바로잡습니다.

* 지난호 23페이지 「산업전도회」 뉴우스 중 「산부인과 의사 김창옥 집사」는 「김창옥 집사의 부인 산부인과 의사 조인순 집사」로 바로잡습니다.

토막소식

- *...교회는 9월 4일부터 저녁에 배 시간을 오후 8시부터 7시 30분으로, 30분을 앞당겼다.
- *...교회 전체 철야기도회가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부터 유년부실에서 있었다. 이날 특별히 새 성전건축을 위하여, 기도원 건축을 위하여, 해외선교를 위하여, 해외여행을 떠나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 *...교회 서무부는 9월 한달동안 교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인력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교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업무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 *...교회는 새로 전화 3대를 신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새전화는 이성근 목사/25-8272, 김하진 목사/25-8814, 이태규 장로/25-8997로서 지난 8월말에 가설을 끝냈다.
- *...우리 교회와 자매교회인 캐나다의 칼가리 한인연합교회 위임목사로 조빙을 받아 지난 8월 24일 출국한 전성덕 목사의 위임식이 지난 9월 10일 현지교회에서 있었다.
- *...구역권찰회는 지난 8월 한달동안 교회 하계행사 관계로 중단하였던 구역예배를 9월 첫주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또 구역요원 훈련을 9월 9일 1,4지구를 대상으로 오후 7시부터 유년부실에서 격분론(강사 정상우 목사)을 주제로 실시하였고 9월 16일에는 2,3,4지구와 훈련을 실시하였다.
- *...전도위원회는 육군 제○○부대 군목이 요청한 이기종 목사의 생애를 그린 선교영화 상영비 보조를 하였다.
- *...이집트(에글) 카이트에 머물고 있는 이연호 선교사의 사모 김실숙 씨가 지난 8월 30일 오후 8시 30분 3차례와 함께 이집트로 향해 떠났다.
- *...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1978학년도 주일학교 각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하였다. 9월 25일까지 각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초안을 교육위원

- 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주일학교 교사 친교회가 오는 10월 3일 열린다.
- *...성경학원의 1977학년 제2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9월 12일(월) 오후 유년부실에서 있었다. 이번 학기의 강사진과 과목은 다음과 같다. 김희보 목사(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아도스), 정기성 목사(사무엘), 이성근 목사(갈라디아), 신성중 목사(로마서·성령론), 김하진 목사(역대기), 윤영탁 교수(시편), 김영한 박사(교회론·영어성경).
- *...당회원 김기정 장로는 오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총회신학대학에서 열리는 제62회 장로회 총회의 총대로 참석하게 된다.
- *...새신자부 7월 학습자는 김효순·박종열·신영선·최종문·조균행·정영태이다.
- *...유치부는 지난 9월 4일 심방의 달을 시작하면서 정기성 목사를 강사로 어린이 심방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 *...당회는 지난 8월 30일 열린 8월 당회에서 김양태(총신대 1년, 전 중등부 교사) 선생을 유년부 부지도로 임명하였다.
- *...초등부는 지난 8월 28일, 어린이회가 주중에 되어 노방전도를 실시하였다.
- *...중등부는 면려회 회지 「길로

- 암」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학생들의 시·수필·신앙간증 등의 원고를 9월 30일까지 중등부 문화부장에게 내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 *...중등부는 9월 11일 특강을 열었다. 주제는 「성경형성사」, 강사는 윤형철 전도사였다.
 - *...고등부는 9월 25일 집연택 선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특강을 연다.
 - *...고등부 교사 손동운 집사는 수도노회주교연합회에서 교사20년 근무표창을 받았다.
 - *...산업전도교육부는 오는 9월 28일 추추절을 맞아 사정에 따라 귀향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위로회를 서오농에서 베풀는다.
 - *...대학부는 지난 9월 11일 헌신예배를 드렸다. 강사는 이준교 전도사.
 - *...청년부는 오는 9월 18일에 있을 제9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난 9월 3일 회원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 *...장년부는 지난 8월 28일 특강을 열었다. 주제는 「전사론」, 강사는 정상우 목사였다.
 - *...임헌덕 장로(미국)가 만만의 결혼관계로 미국중이다.
- 제62회 장로회 정기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주일 집회 및 한글 통계 □

*1977. 9. 4 현재 (매월 첫주 기준)

<집 회>					<한 글>				
구	분	남	여	계	주	일	I II III IV		
예	주 일 낮	214	413	627	예	일	조	정	143,040
		402	1,004	1,406					234,365
		332	575	907					219,600
		84	198	282					63,510
배	주 일 저녁	204	398	602	배	일	조	정	2,476,835
		128	364	492					380,100
		22	18	40					472,200
		25	77	102					97,000
주	영 유	79	71	150	주	일	조	정	38,000
		74	95	169					3,981,420
		166	177	343					
		172	171	343					
일	초 중 고	178	146	324	일	일	조	정	2,650
		163	177	340					26,605
		81	86	167					13,000
		80	110	190					23,960
학	대 청 장	30	228	258	학	일	조	정	24,680
		26	72	98					28,105
		7	33	40					51,286
		2,475	4,379	6,854					6,613,323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세	학습	원입
2,717	2,398/3,699	1,377/2,517	303/240	231/339	487/603

세계 각지에 선교사 파송은 아주 잘한 일!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재학중 기독교생회회장을 할 때 (1968년) 당시 아무도 비판하려 들지 않던 「통일교 비판」 강연을 주도하여 일반 및 대학 사회에 번져가던 통일교의 예봉을 꺾어 버렸던 김영한 형제가 6년여만에 서독 유학에서 모교로 돌아왔다. 본교회 대학부 1회 졸업생으로 증신 신학부에 잠시 직을 두었던 김 박사는 서울대의 복음화와 「크리스찬 엘리트」 운동을 위해 등분서주 힘을 쏟았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면 먼저는 김창인 목사의 복음적인 설교와 교회에서의 영향, 그 다음 학교에서는 신사훈 박사의 강의를 통한 복음적인 영향이고, 우리 대학부에서는 김의환 박사의 젊은이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신앙을 지키시는 생활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서슴없이 그는 말한다. 이러한 영향하에서 그는 여러 동지들과 함께 말씀에 입각한 순수한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전파했으며 특히 신앙적인 전통을 후배들에게 남겨 주기 위해 「크리스찬 엘리트」(기독교 정예)운동의 방편으로 크리스찬 엘리트의 신조, 크리스찬 엘리트의 규범을 만들어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게 된 사유를 간증삼아 이렇게 들려준다. 신학교수가 되어 자유주의와 신비주의를 학적(學的)으로 연구해서 대결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했는데, 특히 오늘날의 신학이란 철학적인 전제에 무리를 먹고 있으니라 조직신학을 공부하려면 철학적인 근거가 든든해야 하기에 그러했다고. 그래서 전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시던 독일 보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4학년 때 생각지도 않게 「서독 정부 초청 장학생 모집」에 응시해서 가망도 없던 여러 가지 테스트를 차례로 합격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겸손해 한다.

그는 철학과 신학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수학하였는데, 「현상학과 신칸트주의의 비교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계속 신학을 연구 「기독교적 현상학」이란 제목의 신학박사학위 논문까지 제출하고 돌아왔다.

특기할 것은 그가 하이델베르크에 한인교회를 세우고 한국 간호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 못 나오는 한국인과 독일인들을 위해 「영의 샘터」라는 선교집을 써서까지 복회를 하였다는 점. 이것이 육효기 선교사의 선교활동에 큰 밑받침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우리교회가 해외에 나가 있는 본교회 출신 유학생들과의 동심관계를 활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성도간의 연락망은 CIA(정보부)정도 되어야 영혼을 구하고 또 자유주의와 대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문서선교가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우리가 해외선교를 힘있게 하려면 외국어 공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영어를 잘해야 중원교회가 세계선교를 감당할 수 있으므로 교회에서

서독에 유학갔던 김영한 선생이 3년전, 20대의 젊은 나이로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이어 3년간 계속 신학연구를 하고 금의환향(錦衣還鄕)하였다. 그는 작년 당회장이 유럽 여행시 브좌해 드렸고, 서독에 파송된 육효기 선교사, 박용삼 평신도선교사를 축면지원하기도 하였다.

지난 8월 하순 어느 날 오후 편지실을 노크한 김영한 박사를 맞아 한 시간여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 젊은 지성인들은 세계 속에 있는 나 자신과 우리의 한국이란 작표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는 김영한 박사.

는 고등학교 이상의 어학을 잘 할 수 있도록 청년부나 대학부 또는 성경학원에 영어회화반이나 영어강좌를 상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교회 젊은이들에게 주는 비전이라면 내가 교역자가 되든, 장로가 되든, 일반 평신도가 되든 상관없이 한국교회를 내가 이끌고 가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자기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자기가 준비를 해야 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에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나는 남한 또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동남아와 북미와 서구…… 지금 세계 속에 있는 나 자신과 우리의 한국이라는 작표를 인식해야겠어요. 현재 서구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부재되고 말씀에 대한 권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권을 잃고 있는 반면 한국교회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같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실선한 위치에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중원교회에서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김창인 목사께서 정확히 보신 것이지요. 우리 청년부, 대학부, 고등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눈길을 돌리면서 준비를 해야겠어요.”

우리교회 교육에 대한 견해를 그는 이렇게 말해 준다. “교육이란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인데 너무 교리적인 인간으로 단결게 될 때 참 기독교로서 사회생활할 때, 기동력이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적 인격성, 그리스도적 교양에 있어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때문에 보수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뛰어들어가서 중심 멤버가 될 수 있는 교육적 방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오토크 집사>

전도용 카세트테이프 보급 안내

김창인 목사 설교 녹음

충현 교회 충현출판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도용으로 제작된 김창인 목사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 류	보급가격	내 용
90분짜리	900원	설교를 포함한 예배순서 전체가 녹음됨
60분짜리	600원	설교만 녹음됨
녹 음	200원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녹음만 의뢰할 때

□ 송료는 별도/국내기준—1개 50원

※ 원칙적으로 보급가격은 설교녹음전도를 위한 헌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급가격에 구애 없이 설교녹음전도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가 친척과 친구를 위하여
- 해외에 있는 친지나 성도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하여
- 전후방 국군장병들을 위하여
- 벽지의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인 동료들을 위하여
-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하여
- 교도소·보호소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 그리고 메마른 나 자신의 심령을 위하여

□ 주문 또는 안내서를 원하시면

100—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 (지) 27—9937·9738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

1977년도 추계성례식 안내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므로 학습·세례·입교 등의 성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아 래—

□ 문답일시/10월 13일(목) 오전 10시~오후 9시

10월 14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 세례식/10월 14일(금) 오후 7시

□ 성찬식/10월 16일(주일) 1·2·3·4부 예배시

1977년 8월 21일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표지설명

여기는 강남구 논현동 7-11. 충현교회의 새성전 건축을 위해 선택된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목하며 애타지 그리던, 신조 때부터 약속받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자나단 평야를 내나 우리에게는 귀한 땅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할 선택된 이 거룩한 곳에서 높이 들린 시온의 영광이 제 밀리 한강 너머 북녘땅에까지 빛날 날 있으리!

월 간 충 현

9월호 통권 제45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7년 9월 18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송 순 일
주간/정 관 일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36

27—9937·9738

29—7726(편집실)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홍해지역 선교회장 거니박사(Dr. Gurney)가 8월 22일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특강과 저녁설교를 했다. 거니박사는 특히 이집트 이연호 목사가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 지난 8월 하순 어느날, 건축위원회 위원들과 일부 성도들은 현재 60~70% 건축 진행중인 충현기도원을 방문 800명 수용가능한 예배당에 앉아 정상우 목사의 인도로 감사예배를 드렸다.



◇ 이집트(애굽)에 주재하는 선교사 이연호 목사를 찾아 김신숙사모가 세말을 데리고 출국했다. 해외 선교회 여부회장 김봉재 권사가 환송의 꽃을 다는 모습. 김사모는 충신 교수 김득룡 박사의 영애다.



◇ 전에 본교회 교육목사로 일한 천성덕 목사가 부인과 두자녀와 함께 우리교회 자매교회인 캐나다의 칼가리한인교회로 떠나기 전, 김포공항에서 당회장 김창인 목사 인도하에 출국예배를 드렸다.



◇ 9월 11일 유년부실에서 산업전대회 주최로 한국기독교산업인회 부회장 김경래 장로의 「선교환경의 변화와 크리스찬의 새로운 도전」이란 특강이 있었는데 40여명의 비회원들도 청강하였다.



◇ 유치부교사회(부장 조현명 장로)는 지난 9월 4일 오후에 전도위원회 지도교역자인 정기성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어린이심방문제에 대한 특강을 열고 이어 질의시간도 가졌다.



내가 바라는 새 예배당

새로 우리 교회당을 짓는다는 말을 선생님한테 듣고 저는 정말 기뻐요. 그리고 새로 예배당을 지으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 어린이회의실이 하나 꼭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매달마다 어린이회에서 월례회나 임원회를 하려면 회의를 할 곳이 없어서 항상 찢찢매고 있어요. 그리고 충현어린이도서관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있는 우리교회 도서관은 어른들만 위해서 만들었 나봐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들어갈 수도 없고 모두 어려운 책들만 있어요. 새 예배당을 지을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책이 많이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꼭 있었으면 해요. 또 한가지는 우리교회 앞에는 자동차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은 참 위험해요. 그러니 새 예배당에는 주차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와같은 예배당을 하루라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선생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나누어 준 저금통에 매일 돈을 넣고 있으며 저금통장도 만들어 예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매일 매일 기도도 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저금도 하면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 믿어요.

초등부 6학년 김 기 훈